렌털만능시대… 스마트폰도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제3325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1일>

코스피 2042.98 (+3.62)

코스닥 686.50 (–4.71)

금리(국고채 3년) 1.65 (+0.01)

환율(원·달러) 1137.00 (+5.00)

이산상봉 이틀째… 애틋한 혈육의 情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회차 둘째날인 21일 오전 금강산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 행사에서 박문수(71) 할아버지가 북측에서 온 누나 박문경(83) 할머니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궁민'연금… 국민의 노후는 없다
<窮民>

現 체제론 2060년 연금 바닥
수익률 강화 위해 조직개편 시급
"기금운용본부 독립성 강화 해야"

"'노후 자금을 공단에 맡겨도 될까' 국민들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 가장 죄송스럽다. 이 대로 가다간 국민의 노후가 안녕하기 힘들 것이다."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좀처럼 속내를 비치지 않는다. 남의 탓을 하는 경우도 없다. 21일 수차례 전화인터뷰를 시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평소 공공과 사석에서 지켜본 기자가 그의 속내를 가상한 코멘트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할 것이냐, 현 상태로 남느냐에 정답은 없다. 분명한 것은 2600조원까지 커질 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홍 본부장의 생각도 일치한다.

홍 본부장은 평소 "기금본부가 분리되지 않은 채 공사 체제로 남아 있으면 이사장이 인사나 예산 등에 간섭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쓸 수 없고,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위축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곤 했다.

2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지난 20일 밤 정진엽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 이사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홍 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방침이 관철되기 전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지배구조(공사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전문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핵심은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 내 공사화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복지부 의뢰로 내 놓은 지배구조 개편안이다.

정부가 지배구조 개편에 발 벗고 나선 것은 기금운용 수익률 때문이다.

홍 본부장은 저금리 여건 속에서도 무난하게 기금운용 수익을 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작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5.3%였다.

문제는 앞으로다. 시장에서는 2060년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익률 확보가 절실한 이유다. 정부 분석대로라면 수익률을 당초 목표보다 1%포인트 높이면 오는 2040년까지 700조원, 2%포인트 높인다면 1600조원의 추가 수익이 난다. 이렇게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을 11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현 지배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금 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만 보더라도 금융과 무관한 인사들이 하고 있다.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노동계, 사용자, 지역가입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20명이 채워져 있다. 그나마 회의도 1년에 대여섯 번 형식적으로 열린다. 마음 놓고 운용하고 싶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기금운용본부 출신 금융권 관계자는 "전문지식이 없는 기금운용본부가 최고의 사결정을 내리고 있더라. 해외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확대하고 대체투자에 나서는데도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재정목표가 부여한 역할범위 내에서 구현돼야 한다"면서 "장기적 적립비율 수준 등 국민연금의 재정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자료=한국개발연구원

국민기업 포스코의 눈물

3·4분기 당기순손실 6500억
연간 기준 창사 첫 적자 위기

국내 철강 대표기업인 포스코가 3·4분기 65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연간 기준 첫 적자위기에 직면했다. 포스코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해외법인 정리 등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권오준 회장(사진)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업계 최초로 분기 배당 실시를 발표했다.

배당 기대감으로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포스코(POSCO)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85%(1만500원) 상승한 19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실적 발표 영향에 장 초반 하락하던 주가는 오후 들어 배당정책에 대한 기대로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했다.

전날 포스코는 연결기준 3·4분기 영업이익이 651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8%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조9959억원으로 14% 줄었고 순손실은 6582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4·4분기 2102억원의 순손실을 낸데 이은 두 번째 손실이다. 포스코는 1968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올해 연간 기준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포스코의 3·4분기 실적에는 외화환산손실(–5290억원), 투자자산감액손실(–3880억원), 신일본제철과의 소송합의금(–2990억원), 이자비용(–1510억원) 등 총 1조3000원의 영업외손실이 반영됐다.

문제는 이러한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계열사 부진에 따른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포스코의 연결기준 자회사는 국내 46개, 해외 181개로 이중 저수익사업 89개 법인을 오는 2017년까지 매각 또는 청산할 계획이다.

강태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4·4분기에는 영업외비용 규모가 감소되며 순손실 역시 800억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분기배당제 추진 계획을 밝힘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Whether to abolish the bar exam, Lawyers fight over Law school VS bar exam

'사시존폐 논란' 사시 vs 로스쿨 변호사 간 난타전

The conflict upon the bar exam and law school has reached its peak among lawyers. The conflict seems to continue because abolishing the bar exam was probably the main reason that Korean lawyer association and Korean law society submitted complaints due to some slander and the leakage of certain documents. The conflict among lawyers from bar exams and those of law schools is going all the way up to political area.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as officially introduced a new bar exam based on the concept of maintaining the bar exam and, therefore, there is going to be disputes over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Korean Law Society on the 20th, Korean Lawyer Association submitted a complaint for the leakage of the documents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retention of the bar exam; investigation is ongoing. Lawyers from law schools, who are in Korean Lawyer Association, sued the netizens for the reputational damage. The complaints from the both sides are not targeting a specific person but it could mean a warning and there is tension still.

The conflict is related to retention of the bar exam. Because, in politics, there seemed to be a discussion on whether to retain the bar exam, this became a dispute between the Korean Lawyer Association and Korean law society.

사시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간의 신경전이 극으로치닫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각각 내부 문건 유출과 비방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배경에 사시존폐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대치는 정치권으로 번지는 등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 존치'를 다룬 내부 문건 유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로스쿨 출신들의 단체인 한법협은 인터넷상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이 제기한 고소가 상대를 향한 직접 겨냥은 아니지만 경고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사시 존치 입법과 연관이 있다. 정치권에서 사시 존치 법안을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협과 폐지를 주장하는 한법협 측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은 것이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보도했다.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라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 미 국무부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해 6자회담이 멈춰 선 상황과 관련,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비핵화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

▲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쏠림**' 논란에 휩싸였다.

정치·사회

▲ 피아니스트 **조성진**(남·21)이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 첫우승을 차지했다. 조성진은 18~20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 22일 오후 3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5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법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할 전망이다.

▲ 교육부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알리는 '**검사평가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공계 등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한 대학이 내년부터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는다.

▲ 역사교과서가 하반기 정국을 휩쓴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구려사 쪽에 집필진 몇 명이 더 필요하다"며 고구려사 서술 확대를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골목길 가득 채운 온기 농협 사회봉사단 회원들이 21일 대전 동구 대동 일대 저소득층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스마트폰**도 정수기나 비데 같은 소형 가전이나 자동차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빌려쓴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는 '렌털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 **현대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힘찬 엔진음을 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톱클래스'의 품질 신뢰도를 인정받았고, 신흥 시장에서는 점유율 높이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 **LG전자**가 미래 자동차부품 개발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이렇다 할 출구를 찾지 못하던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벤츠, 폭스바겐, 타타 등의 자동차 업체들과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자동차부품 개발사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 **LS전선**은 베트남 법인(LS-VINA)이 최근 미얀마 전력청으로부터 1300만 달러(약 150억원) 규모의 송전 케이블을 수주했다.

▲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격호총괄회장의 관리 하에 있는 34층에서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호텔롯데의 퇴거 요구를 거부했다.

▲ **약용식물**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와 차가 늘고 있다. 또 약용식물의 효능을 담은 화장품까지 등장해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 **SK그룹**이 애국심을 가진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SK건설은 복합·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시운전 분야에서 보훈 특별 채용을 한다.

▲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수익률 확보 방안이 없어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다.

▲ **포스코**가 3분기 65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3000억원의 순손실로 첫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권오준 회장의 분기배당정책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신한금융**이 올 3분기에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7000억원에 가까원 순이익을 달성하며 '리딩뱅크'에 올라설 전망이다. KB금융은 4000억원대로 신한금융을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세청**이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방안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렌털 만능시대… 정수기·비데 이어 스마트폰까지

다날쏘시오·SK텔레콤 등 고가 아이폰6s 대상 내달 렌털사업 시작 검토

구매 부담↓ 수요↑ 기대

애플 아이폰6S

스마트폰도 정수기나 비데 같은 소형 가전이나 자동차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빌려쓴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는 '렌털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애플이 오는 23일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를 출시하면서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도 렌털 서비스가 개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액 결제 업체인 다날의 계열사인 다날쏘시오 등 유통업체가 다음달 사업 시작을 목표로 휴대전화 렌털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도 이르면 다음달 사업 개시를 염두에 두고 휴대전화 렌털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 렌털 서비스가 도입되면 통상 24개월 할부로 신형 단말기를 사는 것보다는 요금이 싸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단말기 구매 부담이 줄어들어 프리미엄폰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중고폰 사업자로서는 어느 고객으로부터 언제, 어떤 휴대전화가 나올 지를 쉽게 예측해 사업을 체계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날 전망이다.

SK텔레콤측은 "아직 사업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서비스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업계는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 출시 직후인 11월부터 SK텔레콤이 SK그룹의 지주회사로 중고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주식회사C&C와 손잡고 스마트폰 렌털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 렌털폰 사업의 초기 비용 부담과 소비자들의 인식, 단통법으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 KT와 LG유플러스는 렌탈폰 사업에 대해 회의적이다.

KT 관계자는 "노트북과 TV는 렌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렌털 사업을)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위반 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라 통신사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백설영 사무관은 "렌털폰 사업과 관련해서 단통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며 "현재 이동통신사의 렌털폰 사업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애플이나 이동통신사들이 렌털폰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열려 있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애플이 지난달 아이폰6S와 아이폰6S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선보인 '아이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사실상 렌털폰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32 달러를 내면 1년마다 새 아이폰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진격의 현대기아차… 美선 품질, 신흥시장선 판매 '질주'

美 컨슈머리포트 품질평가 사상 첫 동반 '톱10'

브림스(BRIMs) 등 신흥시장 역대 최고 점유율 달성

현대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힘찬 엔진음을 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톱클래스'의 품질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신흥 시장에서는 점유율 높이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잡지 컨슈머리포트는 20일(현지시간) '연간 자동차 신뢰도 조사'를 통해 한국의 기아차가 6위, 현대차가 9위에 올랐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4계단씩 상승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란히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기아차는 역대 최고 순위인 6위에 올랐다. 또 '가장 믿을만한 브랜드'(Most Reliabale) 7개 가운데 하나로도 선정됐다. 현대차는 '믿을만한 브랜드'(Reliabale)로 꼽혔다.

컨슈머리포트는 이번 결과 발표에서 현대기아차의 약진을 주목했다. 12월호(잡지) 기사에서 업체별 내용 중 한국차부터 언급했으며 기아차 '쏘렌토'의 사진을 대표로 사용하기도 했다.

컨슈머리포트는 "기아차와 현대차 등 한국차가 강세를 보였다. 형제회사(기아차와 현대차)는 각각 6위와 9위를 차지했으며, 기아차는 처음으로 혼다를 큰 차이로 눌렀다"고 설명했다.

매년 컨슈머리포트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들의 신뢰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 잡지로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는 신흥시장에서도 쾌속 질주를 하고 있다. 브라질·러시아·인도·멕시코등 신흥시장 4개국(브림스·BRIMs)에서 역대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각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9월 브라질 1만5860대, 러시아 1만5106대, 인도 4만2505대, 멕시코 2518대 등 브림스 4개국에서 전년동월 대비 5.3% 증가한 7만5989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한달간 브림스 시장에서 팔린 전체 차량(67만6123대)의 11.2%에 해당한다. 브림스 시장에서 전체 자동차 판매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4.4% 감소했으나 현대차는 5% 이상 판매량을 늘리며 역대 최대 점유율을 달성했다.

현대차는 지난 2월 처음으로 브림스 시장 점유율 10%를 넘어선 이후 8개월 연속으로 두자릿수 점유율을 지켰다. 이는 크레타·쏠라리스·HB20·i10 등 현지 전략형 차종들의 꾸준한 강세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크레타는 9월 인도에서 7256대가 팔려 3개월 연속 SUV 판매 1위 자리를 지켰다. 소형차 쏠라리스도 9월 러시아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0.0% 늘어난 1만1006대가 팔려 3개월째 베스트셀링카 1위를 유지했다.

올해 1~9월 브림스 시장의 전체 자동차 판매는 총 604만3970대다. 현대차는 이 기간에 브라질 15만1653대, 러시아 11만9385대, 인도 34만3474대, 멕시코 1만8622대 등 총 63만3134대를 판매, 시장 점유율 10.5%를 기록했다.

/조한진기자 hjc@

현대차 SUV 크레타. /현대차

기아차 SUV 쏘렌토. /기아차

소비자는 깐깐·당국은 내수전환

中 토종기업에 밀려 짐싸는 외국업체

'고품질 초저가 복사판' 전략
中 토종업체, 시장 잠식 탄력
얌브랜드, 현지 사업부 분사

중국 고객이 상하이 번화가에 있는 KFC 매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한 세계의 기업들에게 악재가 줄을 잇고 있다.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수출 중심에서 내수 소비 주도의 안정 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긴 했지만 이제는 정말 절박해졌다. 6년 반만에 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이 7%대 아래인 6.9%로 떨어졌고, 외부에서는 실제 3~4%대 성장률을 거론하며 통계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착륙을 통한 안정 성장이 아니라 경착륙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외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중국은 내수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급 상품과 서비스에 눈을 떠 까다로워진 중국 소비자들을 외국업체들이 공략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시장 진출 초반 거저먹기나 다름 없던 중국시장에서 낙오하는 업체들이 속출하는 이유다. 중국 토종업체들이 '고품질 초저가 카피판'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외국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1987년 베이징 톈안먼광장에 첫 KFC매장을 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던 얌브랜드의 중국 사업부 분사 발표는 외국업체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얌브랜드는 20일(미국시간) 중국 사업부인 얌차이나를 별개의 상장 기업으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얌차이나는 KFC, 피자헛, 타코벨 등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상표권을 얻는 대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얌브랜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얌브랜드의 중국 사업부 분사는 외국업체들에는 주요한 국면 전환"이라며 "이제는 과거처럼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패스트푸드 시장은 맥도날드와 KFC 등 서방 업체들이 장악해 왔지만 최근 들어 토종업체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샤부샤부 케이터링 매니지먼트 홀딩스는 중국 내 500개 음식점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홍콩증권시장에서 1억 4700만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를 준비 중이다. 팅신인터내셔널그룹의 디코스 프라이드치킨 체인은 2011~2013년 점포를 948개 늘려 현재 20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햄버거 업체인 화라이스는 점포 수를 2005년 100개, 2006년 200개, 2007년 1000개, 2013년 4800개로 급속히 늘렸다.

이들 토종업체들은 외국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따라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앞서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더 값이 싼 토종업체를 찾거나 아니면 더욱 고급 서비스를 찾는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외국업체들은 더 이상 '환상 속의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국 토종업체의 약진은 이런 분야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자와 자동차 등 산업 전방위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샤오미는 19일(중국시간) 베이징에서 가진 신제품 공개행사를 통해 파격적인 가격의 1인용 2륜 전동스쿠터 '나인봇 미니'와 초고화질(UHD) TV를 선보였다. '나인봇 미니'의 가격은 원조인 세그웨어 제품의 2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 원조를 압도하는 가격 경쟁력에 각국 언론은 '가격 파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샤오미의 '가격 파괴'는 갖가지 종류의 전자제품을 아우르고 있다. 외국업체들은 중국 시장 공략은커녕 자신들의 시장마저 위협받고 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창청자동차의 하푸H6, 장화이자동차의 루이펑 S3, 창안자동차의 창안CS35 등 토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VU)은 41.45%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모두 10만위안(한화 1952만원) 이하의 가격이라 경쟁력에서 외국업체를 압도했다. 상하이 폴크스바겐, 이치 폴크스바겐, 상하이 GM, 베이징 현대 등 해외 브랜드는 모두 판매율이 감소했다. 깐깐해진 중국 소비자의 변화를 놓친 결과다. SUV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급성장한 분야다. 내수 시장에 눈을 돌린 중국 정책의 성공 사례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중국이 세계에 디플레 수출"

원자재 수요 감소… EU 등서 마이너스 물가 속출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로 세계적인 마이너스 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에 디플레 압력을 수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달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약 반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대비 -0.1%였다. 다른 나라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이거나 0%에 머루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지난달 전년 동기대비 0.6%로 10개월째 0%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세 둔화는 중국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경제가 활기를 잃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최근의 물가 상황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세계 원자재 수요 둔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CB는 22일 몰타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은 ECB가 연말께 양적완화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달 말에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연다. 시장에서는 양적완화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송병형 기자

英도 '중국 쏠림'?… 시진핑 환대에 美 '떨떠름'

국빈 방문에 왕실 3대 총출동
CNN "英, 경제적 이익만 추구"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인 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쏠림'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영국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부는 물론이고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세손 등 3대가 총출동했다. 환영식과 만찬을 열고 숙소까지 버킹엄궁에 마련했다.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다. 양국 정부는 '황금기'가 열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 주석은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이후 국가주석으로 10년 만에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영국은 내년 1월을 목표로 2년짜리 복수 입국 관광 비자 비용을 낮추기로 하는 등 유커(중국 관광객)

영국을 4박5일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를 위한 입국 비자제도 개선에 나선다. FT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유커 유치를 넘어) 중국에 더 큰 것을 바라는 것 같다"고 봤다. 영국은 중국 자본을 유치해 북부 지역 개발과 원전·고속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속내다.

중국은 이날 런던 금융 시장에서 50억 위안(약 8900억 원) 규모의 1년 만기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했다.또 양국은 시 주석 방문 기간에 300억 파운드(약 52조 원)에 달하는 150건가량의 투자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160억 파운드(약 27조9000억 원) 규모의 힌클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프로젝트다.

경제적 이익을 노린 영국의 친중국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반대에도 서방국가 중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장 먼저 가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맹방인 미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두고 중국과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민감한 시기에 영국의 친중국 행보가 절정에 달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CNN은 "시 주석에 대한 영국의 환대는 최근 미·중 갈등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사이에 영국은 경제적 이익만 취한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이 원전에 해킹 프로그램 등을 심을 수 있다. 영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보 관련 부서로부터 나온다"고 보도했다. /송병형 기자

朴-여야 지도부, '5자 회동'서 이견차 좁히나?

박 대통령, 경제활성화법안·FTA 등 처리 당부 전망
야당 "교과서 국정화 문제, 주요 의제로 선정돼야"

22일 오후 3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5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한다. 또 노동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법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할 전망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담에 나선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의 정기국회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투자와 고용 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 의료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을 3년째 이렇게 묶어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한·중FTA을 비롯한 베트남·뉴질랜드와 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개혁 5개법안 입법에도 힘 써 줄 것을 여야에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가운데) 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지난 3월 3자 회동을 가졌을 때의 모습. /연합뉴스

문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솔직히 내일 회동이 걱정된다"며 "국정교과서 문제 만큼은 좀 합의를 이루어서 국민에게 선물을 드려야하는데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황우여-김정배, 고구려史 서술 확대 시사

고구려 재단 설립 함께 주도 "집필진 더 필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하반기 정국을 휩쓴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구려사 쪽에 집필진 몇 명이 더 필요하다"며 고구려사 서술 확대를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 부총리는 20일 서울 중구의 한 한식집에서 대학 총장 등 20명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사편찬위원회가 고구려사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드러냈다.

그가 고구려사에 관심을 두는 배경에는 김정배 편찬위 위원장과의 인연이 있다. 황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던 2004년 당시 정부가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했는데 그와 함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김 위원장이다. 고구려사를 전공한 김 위원장은 이 재단의 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에는 '고구려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책도 발간했다.

교과서 개발에 주체인 교육부와 집필 주체인 편찬위 수장의 이 같은 인연과 이력을 감안하면 교과서 집필 시 고구려사에 더 관심을 보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2015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고대사 부분 비중을 늘리고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겠다고 공언한 만큼 고구려사 서술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란 분석도 같은 맥락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 발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시대 서술이 대단원에 포함돼있지만 새 교육과정에는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는 별도의 단원이 실린다. 이미 교육부는 단일 교과서에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서술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아울러 2017년 나오게 될 역사교과서에 아웅산 테러와 육영수 여사 피살 등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저지른 아웅산테러와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교과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웅산테러는 1983년 10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버마(현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북한의 폭탄 테러로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을 말한다.

권 교수는 "그들(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진)은 이런 사건은 숨기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일부러 누락시킨 일종의 '침묵의 공모'를 한 것 같다"며 "향후 국정교과서에서는 아웅산테러 사건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권 교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 저자 중 한 명이다.

특히 권 교수는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과 관련, "영부인이 적국의 사주를 받아 살해된 엄청난 사건인데도 누락됐다. 하나같이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과서에 이 같은 내용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으로 사학계의 집필거부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에 반(反)하는 계급투쟁적인 민중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필을 거부한다면 이는 오히려 바라던 일"이라며 "민중사관에 입각한 자들은 교과서를 집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미란기자 actor@

'신박' 자처한 원유철

"당청, 봉사해야하는 관계"

취임 100일을 맞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가 21일 당청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박(신 친박근혜)'이라고 불러달라"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청은 긴장과 견제 관계가 아니고 오로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히 봉사해야 하는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정청은 삼위일체이고 한 몸이며 공동운명체"라며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고 새누리당의 미래도 있다. 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으로 호흡을 맞췄지만 유 전 원내대표가 '국회법 파동'으로 청와대와 갈등 끝에 사퇴하자 지난 7월 14일 원내대표로 합의추대됐다. 당시 그는 계파색이 옅은 '비박계'로 분류됐지만 취임 이후 청와대와 부쩍 가까워지면서 '신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그는 청와대와 지나치게 가까워 쓴소리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가까운 게 당연한 것"이라며 "관계가 좋으면 쓴소리도 바로 잘 전달된다. 평소 소통이 잘 되면 쓴소리도 '단소리'로 받아들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당청간) 맹목적인 관계나 당내 화합을 소홀히하지않겠다. 당의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내는 원내대표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당이 필요로 할 때 (계파의) 균형추 역할을 통해 당내 화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수도권이 승패를 가르는 수도권 대첩이 될 것"이라며 "당내 화합과 노동개혁 등 국정개혁 완수라는 두 가지만 충족되면 다시 새누리당이 여당으로 일할 기회를 얻을수 있다"고 전망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는 "공무원연금 개혁도 초기에는 많은 의원들이 걱정했지만 결국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집권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당론으로 역량을 집결했다"면서 "교과서 문제도 그렇게 함께 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유선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변협, 검사평가제 시행… 수사중 자살 사라질까

하창우 회장 "전근대적·후진적 수사 없애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알리는 '검사평가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를 할 수 없도록 제어하자는 취지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변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다.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형사 사건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이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변협은 이 자료가 인사에 반영되도록 관련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검사평가는 지난 1월부터 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쯤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에서 열린 '검사평가제 최초 시행'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위검사는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지만 언론에는 사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우수 검사와 하위 검사의 비율은 서울 기준 각각 10명씩, 지방기준 5명이 될 전망이다.

하 회장은 "제도가 상당 시일이 지나면 이후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 때도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 "시행 7~8년이 된 법관 평가제는 이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결과가 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평가제에 대한 반론도 있다.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검사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하 회장은 "검사가 평가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우수법관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사평가제에 대한 구체적 평가 기준 등이 공개되자 검찰 측은 "공정한 수사에 장애가 우려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취업중심 학과개편 대학에 재정지원

산학연계 활성화 기대

이공계 등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한 대학이 내년부터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21일 산업현장에 부족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에 2012억원(정부 예산안 기준)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3년간 4년제 대학 19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프라임사업의 유형은 대형인 '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소형인 '창조기반 선도대학'으로 나뉜다. 진로·취업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학생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선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를 선정해 3년간 15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별 지원 규모는 평균 150억원이고 최대 300억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입학정원에서 10%(100명 이상)나 2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창조기반 선도대학' 10개교에는 3년간 대학별 평균 50억원씩, 모두 5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유형은 신기술·직종, 융합전공 등 창조경제와 미래 유망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학과, 사회 맞춤형 학과 등의 교육모델을 도입하는 대학이다. 이 기준에 맞게 입학정원의 5%(50명 이상)나 1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학사구조 개편은 학과 신설, 학과 증원·폐지 및 감축, 캠퍼스간 정원조정뿐 아니라 대학간 정원조정도 포함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지원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프라임 사업을 시행하면 이공계 정원이 크게 늘면서 상대적으로 인문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으로 4년제 인문대학을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대학 중 평가를 거쳐 대학별로 10억~40억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인문학 발전계획은 ▲지역 전문가를 육성하는 글로벌 지역학 ▲ 인문학과 경영, 디자인, 정보통신(IT) 등을 결합한 인문기반 융합전공 ▲ 인문학 연구기능을강화하는기초학문 심화 ▲ 인문소양 교육에 중점을 기초교양대학 등 다양하다.

정부는 내년도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으로 344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또 교육부는 직장인, 주부 등 성인이 다니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300억원을 편성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산업체에서 3년간 근무한 재직자나 25세 이상의 재직자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에 다닐수 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12곳을 선정해 내년에 학교당 평균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전기차 충전시설 내년부터 '유료화'

환경부, 내일 요금안 논의

그동안 무료로 운영하던 전국의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이 내년부터 유료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적정 요금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고 3가지 요금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기차는 전국에 337기가 있다.

요금안은 유류비 대비 40~62% 선에서 책정했다. 킬로와트시(kW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당 요금과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를 비교했다.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

월 요금을 보면 제1안은 연간 1만 3378㎞ 주행을 기준으로 월 5만 3천원이 든다. 제2안은 5만 9000원, 제3안은 8만 2000원이다.

이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와 비교해 각각 40%, 45%, 62% 수준이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에너지플러스 2015에서 Kepco 관계자가 전시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초 구입 및 유지에 드는 비용도 내연기관차보다 꽤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다. 5년간 운행시 구입비, 연료비 및 세금을 합산한 비용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약 126만(3안)~290만원(1안) 적게 든다.

동급인 쏘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비교하면, 총비용(1안 기준)은 전기차 2957만 1천원, 내연기관차 3246만 3000원이다.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총 비용은 더욱 낮아진다. 연간 3만㎞씩 5년을 운행할 경우 내연기관차보다 약 515만(3안)~894만원(1안) 저렴하다.

환경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요금을 확정한다. 올해 말부터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연미란 기자

"당정협의發 학제개편에 신중한 검토 필요"

교육부 "고려사항 많다"

교육부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21일 교육부는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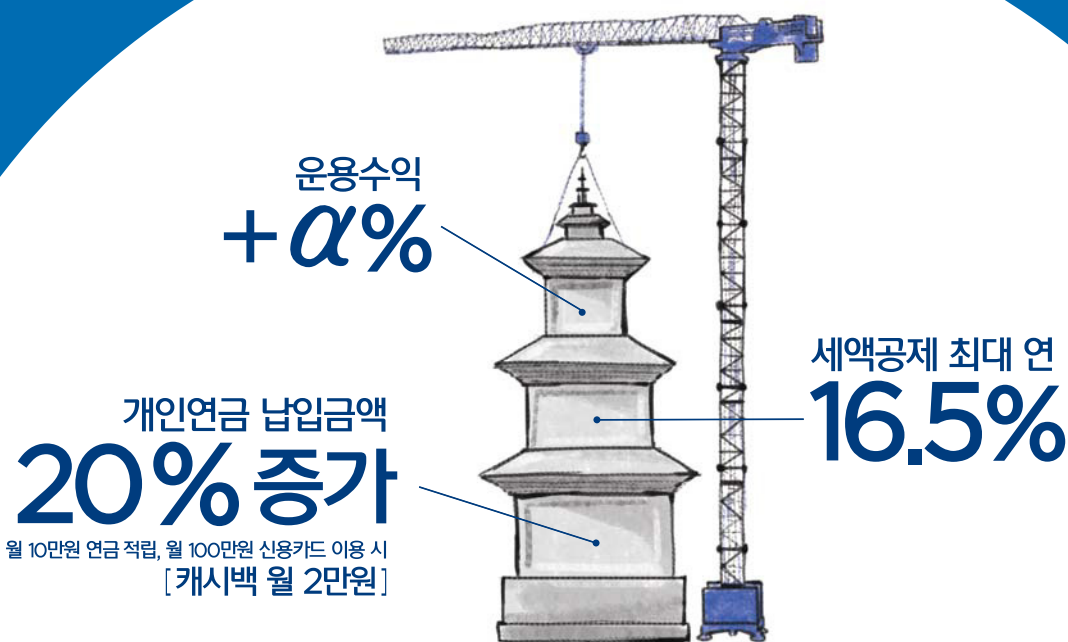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입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 등 학제개편을 추진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미란 기자

업계 최고수준 신용등급 AA+
(2015년 5월, 한기평·한신정·나신평 기준)

한국금융투자협회심사필제2015-05801호(2015.08.26-2016.08.24)

운용수익
+α%

세액공제 최대 연
16.5%

개인연금 납입금액
20% 증가
월 10만원 연금 적립, 월 100만원 신용카드 이용 시
[캐시백 월 2만원]

쌓고 쌓아
적립률 탑!

차곡차곡! 혜택을 쌓아주는
놀라운 개인연금을 만나보세요

Think you very much

[KDB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소비와 동시에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과 투자가 가능 | 특허출원증 출원번호 10-2015-0040150

모든 가맹점 이용 시, 신용카드 캐시백 최대 월 2% 자동입금 + 개인연금 세액공제 최대 연 16.5% + α (개인연금펀드 운용수익)

예시 | 월 100만원 신용카드 이용 및 투자비율 10% 지정 시 개인연금 납입금액 10만원 + 캐시백 2만원 지급
(개인연금 납입금액 :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5~50%의 투자비율 또는 일정금액으로 지정가능 / 세액공제율 연 16.5% : 지방소득세 포함,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해당 비율은 신용카드 이용실적 및 소득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KDB대우증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VENT 연금아! 우리집을 부탁해 | 12월 31일까지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매월 [워너비 아이템]을 경품으로 드립니다
*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KDB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DB대우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금 외 수령 및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으로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통장 및 현금카드 매매 · 양도는 범죄입니다.

고객센터 | 1588-3322

세계 과학계 지성들 'SK 대전창조경제센터' 방문 러시

창업 생태계 구축 'SK웨이' 이목 집중

구리아 OECD사무총장 등 세계과학정상회의 참석자 필수 탐방 코스로 부상

20일 대전센터를 찾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이 임종태 대전센터장(맨 오른쪽)으로부터 LED로 만든 환영 꽃다발을 받고 있다.

세계 과학계 지성들의 발걸음이 SK그룹이 지원하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개최된 세계과학정상회의에 참석한 과학기술 장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연달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면서 이곳 대전센터가 정상회의 기간 필수 탐방 코스로 부상했다.

대전센터 출범 이후 창조경제 연구와 벤치마킹을 위해 해외 대사관과 정부 부처 관계자, 국회의원, 대학 교수가 찾은 적은 많았지만 장관과 국제기구 수뇌부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식 창업생태계'에 과학기술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대전센터에 따르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윤종원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과 함께 대전센터를 방문했다. 정상회의 기간 중 특별강연을 통해 창조경제를 높게 평가했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대전센터의 벤처기업 육성전략 등을 상세히 물어보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세계과학기술포럼 특별강연에서 "창조경제는 한국의 성장 패러다임을 산업화 경제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창의성에 기반한 구조로 전환한 것"이라며 "핀란드의 연구개발(R&D) 혁신전략, 독일의 첨단기술전략과 함께 가장 성공적인 국가 혁신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대전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주력하는 사업 아이템과 접목시킨 첨단기술 종류와 활용폭, 사업화 수준 등을 물어보면서 "회사가 성공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대전센터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술벤처 4곳의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 시간여 현장 방문을 마친 뒤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하이테크에 기반한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모델"이라며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닌 새로 시작하는 회사가 창출하는데 이런 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회사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함께 온 OECD 직원들을 불러 모아 "이런 모델을 연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당부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투르키 사우드 빈 모하메드 알 사우드 과학기술처장이 대전센터를 방문했다. 투르키 처장은 사우디 왕자이면서 과학기술로 사우디의 성장동력원을 찾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대전센터와 협력 모델 구축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투르키 처장은 "정부와 대기업이 협력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사우디도 정부가 혁신을 주도하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창조경제식 협력 모델을 서둘러 도입하고 싶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대전센터와 협력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우디는 지난 2008년부터 실리콘밸리 등 해외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 왔다. 최근에는 인큐베이팅 기관을 설립하는 등 육성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 3월 SK와 사우디 최대 이동통신사인 사우디텔레콤 간 창조경제식 인큐베이팅 모델을 수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투르키 처장은 "대전센터와 SK, 사우디텔레콤 등 3자가 진행하는 창조경제 이식작업에 사우디 정부가 참여하는 4자간 구도를 형성해 사우디판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우디 정부 책임자가 정부 차원의 협력 모델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창조경제 성과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22일에는 정상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가 장차관 인사 1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임종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창조경제식 창업시스템으로 고용창출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창조경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 브랜드가 됐음을 실감한다"며 "현재 육성중인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입주업체 입장에서는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전자' 꼬리표 떼려는 LG

GM 쉐보레 볼트 EV 파트너 선정 미래 車 부품서 성장동력 찾아

LG전자가 미래 자동차부품 개발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이렇다 할 출구를 찾지 못하던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벤츠, 폴크스바겐, 타타 등의 자동차 업체들과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자동차부품 개발사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21일 LG전자는 GM의 차세대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 개발의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제휴를 통해 GM에 핵심부품과 시스템 11종을 공급하게 된다. 11종은 구동모터, 인버터, 차내충전기, 전동컴프레서, 배터리팩, 전력분배모듈, 배터리히터, 주변기기용 전원 공급장치인 DC-DC 컨버터, 급속충전통신모듈,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다.

GM은 차세대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자동차 부품회사가 아닌 IT기업으로 오랜 기술 노하우를 가진 LG전자를 택했다.

양사는 한번 충전으로 320㎞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쉐보레 볼트 EV를 공동 개발 예정이다. GM은 내년 말부터 미국 미시간주 오리온공장에서 쉐보레 볼트 EV를 양산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13년 스마트폰의 실적부진과 TV사업의 어두운 전망 속에 자동차부품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자동차 부품을 담당하는 VC사업부를 신설했다. LG CNS 산하 차량 엔지니어링 회사 V-ENS와 LG전자 내부에 있던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부들을 한데 통합한 조직이다.

VC사업부는 신설된 이후 벤츠, 폭스바겐, 타타, 볼보, GM 등 유명 브랜드와 스마트카, 친환경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에 손잡았다. 이에 따라 매출도 올 1분기 3826억원에서 2분기 4510억원을 기록하며 한 분기 사이 18% 성장했다. 올 3분기에도 5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더 밝다. 이번 GM 부품 공급 계약 건에 대한 본격 매출은 쉐보레 볼트 EV 양산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7년 본격 판매에 들어가면 VC 사업부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 VC사업본부 이우종 사장은 "GM의 전기차 개발 파트너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미래 자동차의 핵심부품 개발사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中 쓰촨성에 초대형 통합물류센터 준공

현대글로비스 상용차 생산 부품 공급

현대글로비스가 중국에 초대형 자동차 부품 물류센터를 만들었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상용차 생산에 중심이 될 쓰촨 글로비스 통합물류센터를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물류센터는 중국 쓰촨성 쯔양시에 총 부지 19만1300㎡ 규모로 건립됐다. 자동차 부품 공급 창고 2개 동 등이 들어섰고, 총 투자 규모는 360억원이다. 현대글로비스가 국내외에서 운영중인 자동차 부품 통합물류센터 가운데 제일 큰 규모다.

중국 쓰촨성에 준공된 현대글로비스 초대형 통합물류센터. /연합뉴스

현대글로비스는 쓰촨 글로비스 통합물류센터를 통해 국내 전주KD센터와 중국 현지의 부품 협력사로부터 조달한 1만여개의 상용차 생산 부품을 쓰촨 현대기차 유한공사(쓰촨 현대)에 공급한다.

현대글로비스는 중국 현지에서 쓰촨 현대가 생산할 중형버스 '카운티'(현지명 캉언디)를 비롯해 대형트럭 '트라고 엑시언트'와 중형트럭 '마이티'의 부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쓰촨 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생산력 강화 기조 아래 쓰촨 현대에 통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 10월 설립됐다.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은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물류 효율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

대한항공, 무인항공기 개발 적극 나서

과학기술연구회와 MOU

대한항공이 정부산하 공공기관과 손잡고 무인 항공기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21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 2015'(서울 에어쇼)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무인항공기 등 미래 첨단기술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한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관리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연구기관이 보유한 미래 첨단 무인기 기술을 실제 사업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산업체 이전 확산 ▲무인기 분야 등 미래첨단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 연구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무인기 등 미래첨단 산업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대한항공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조한진 기자

보훈자 특채 등 대기업 '애국심 채용' 확대

SK건설, 복합·석탄 화력 발전소 분야 모집
롯데·한화도 동참… 기업이미지 상승효과

SK그룹이 지난달 개최한 '전역연기 장병 특별채용 설명회'에 참석한 군 전역자 및 전역 예정자들이 채용 설명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그룹

SK그룹이 애국심을 가진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은 입사 후 성실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기업 이미지를 끌어 올리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SK에 따르면 SK건설은 복합·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시운전 분야에서 보훈 특별 채용을 한다.

채용 대상자는 경기도 파주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 경력직으로 28일까지 원서를 접수 받는다. 국가보훈대상자로 4년제 대학 졸업에 국내외 발전 프로젝트 경험 10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SK건설은 지난 9월에도 국가보훈자를 대상으로 C/S 직무와 관련한 경력직 특별 채용 원서를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보훈 특별 채용 확대는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당시 전역 연기를 신청한 장병이 50여명에 이른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부서에 우선 채용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SK그룹은 지난달 6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설명회를 실시하고 유공자 저소득 노인용 주거복지 사업에 3년간 1000억원을 기부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애국심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이 보여준 열정과 패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DNA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주요 대기업들도 최근 애국심을 강조하며 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롯데그룹은 지난 8월 서부전선 지뢰 사태 당시 전역 연기를 자원한 장병들을 특별 채용했다. 12명 가운데 면접에 불참한 1명과 학업 연장을 이유로 채용을 고사한 1명을 제외한 10명이다. 회사 측은 이들의 애국심과 동료애 등을 높이 평가해 채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화는 천안함 사건 유가족 중 사망자의 직계나 배우자, 형제·자매를 지난 2010년부터 채용하고 있다.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5주기에는 그룹에 이미 입사하거나 입사 예정인 천안함 유가족 14명과 희생자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배터리 중심의 기술시대 선도해야"

조남성 한국전지협회장
"반도체 시장보다 커질 것"

조남성 한국전지산업협회장 겸 삼성SDI 대표가 인터배터리2015 전시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SDI

"배터리가 중심이 되는 BoT(Battery of Things) 시대를 맞아 배터리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해 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조남성 한국전지산업협회장(삼성SDI 대표)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15' 전시회에서 '미래를 여는 새로운 가치, 배터리'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과거부터 에너지는 우리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해왔으며 배터리의 등장은 이 같은 에너지의 활용성을 더욱 높여 인간의 삶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며 "배터리의 등장이 인간에게 공간과 시간,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에 펼쳐질 기술의 중심에는 배터리가 있는 BoT(Battery of Things)시대"라며 "배터리 시장은 웨어러블 기기와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시장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BoT 시대 선점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E.C.O'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는 다가올 '에너지(Energy) 공유 시대'를 위해 표준화와 플랫폼 구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C는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산업, 정부, 학계 나아가 다른 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Cooper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O는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추진하는 것이다.

조 회장은 "배터리 시장은 웨어러블 기기와 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시장 확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2020년 D램 시장, 2025년 디스플레이 시장을 뛰어넘어 1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LG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은 최근 파주환경운동연합과 비전커뮤니티 학생들과 함께 파주시 법원읍 보광사 주변 계곡에서 양서류 모니터링·주변 정화활동을 펼쳤다.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자연환경 상생방향 논의

'생물다양성 보존 심포지엄'

LG디스플레이가 22~23일까지 경기도 파주사업장 인근의 문산 행복센터에서 생물다양성 보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해 온 환경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부, 학계, 환경보호 NGO, LG 상록재단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다. DMZ에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파주 공릉천 습지 생태 보존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환경공헌 활동 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생물다양성 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연환경과의 상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은미 기자

LS전선, 150억대 미얀마 송전케이블 수주

역대 최대 규모… 구매량 절반

LS전선은 베트남 법인(LS-VINA)이 최근 미얀마 전력청으로부터 1300만 달러(약 150억원) 규모의 송전 케이블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LS전선이 미얀마에서 수주한 송전 케이블은 역대 최대 규모로, 미얀마 전력청의 연간 전력 케이블 구매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번 입찰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의 케이블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LS전선은 베트남 법인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술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단독 수주했다.

김선국 LS전선 생산본부장(전무)은 "이번 계약은 급성장이 예상되는 미얀마의 케이블 시장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베트남 법인의 안정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력뿐 아니라 통신 케이블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얀마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기 보급률이 30% 이하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미얀마 정부는 2001년부터 2031년에 걸친 6단계의 대규모 송배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수립해 9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케이블 시장은 지난 2013년 2억4000만 달러에서 2020년 4억8000만 달러로 200% 성장이 예상된다.

LS전선 베트남 법인은 현지 1위 전선기업으로, 생산된 제품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매출 4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4800억원이 목표다. /정은미 기자

아시아나항공

부산-오키나와선 증편 주 3회→주 7회로 변경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5일부터 부산-오키나와 노선을 기존 주 3회에서 주 7회로 증편 운항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나는 현재 부산-오키나와 노선에 매주 수·금·일요일 등 총 3회에 걸쳐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동계 스케줄 조정을 통해 주 7회 매일 운항으로 항공편 운항을 늘릴 계획이다.

일본 본토 서남쪽에 위치한 거대한 화산섬인 오키나와는 따뜻한 기후와 수려한 관광자원, 다양한 먹거리를 갖추고 있어 한국인이 많이 찾는 일본의 대표적인 휴양 관광지다. 최근 동계 시즌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아시아나는 이번 부산-오키나와 간 항공 운항편 증대를 통해 승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스케줄 선택권을 제공하고,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 승객들의 편익 증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증편을 기념해 아시아나는 인터넷 홈페이지(flyasiana.com)를 통해 부산-오키나와 노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한진 기자 hjc@

IT업계 불 붙은 도로 위 '택시' 전쟁

카카오, '블랙' 고급화 전략
T맵, 지역콜 제휴 영역 확장

카카오가 고급 택시 서비스 '카카오택시 블랙'(왼쪽)을 선보인다. 이에 맞서 SK플래닛은 전국 콜 택시 사업과들과 제휴를 통해 T맵 택시의 승객 콜 요청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SK플래닛

소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가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을 만나 변신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에 세워진 택시를 잡아 타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차량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택시 시장이 크게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면 택시 기사가 이를 확인하고 찾아오는 모바일 콜택시 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택시'는 이달 기준으로 누적 호출 건수 3000만건, 기사 회원 수 16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보다 한 달 늦게 시장에 나온 'T맵 택시'는 승객용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350만건, 기사 회원 5만명을 달성하며 뒤를 쫓고 있다.

이에 카카오와 SK플래닛은 한층 차별화된 서비스로 본격적인 시장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콜택시 시장의 '공룡'으로 떠오른 카카오택시는 고급 택시 서비스 '카카오택시 블랙'으로 진화한다. 카카오택시 블랙은 카카오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의 고급택시 운영법인 하이엔이 지난 8월 12일 고급택시 서비스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준비한 고급택시 서비스다.

기존 중형택시나 모범택시와 달리 배기량 2800cc 이상의 차량에 요금 미터기나 결제 기기, 차량 외부 택시 표시 설비 등의 설치 없이 호출과 예약제로만 운행 가능하다. 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된다. 서울시의 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벤츠 'E클래스' 등 3000cc급 고급 차량 약 100대와 하이엔에서 일주일 동안 진행된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한 200여명의 기사로 시범 서비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검증된 전문 기사들이 승·하차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 내부에는 승객을 위한 생수, 휴대폰 충전기 등 편의 물품이 비치된다.

호출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은 카카오택시 앱으로 간편하게 이뤄진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 뒤 택시 종류에서 '블랙'을 선택하면 고급택시 호출이 가능하다. 기본 요금은 8000원 수준으로 카카오 자체 개발 미터기를 통해 계산된 요금이 최종 부과된다. 현재 요금 수준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확정된 금액으로 서울시 신고 후 적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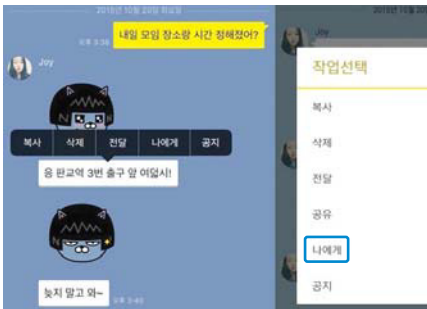
정주한 카카오 부사장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만족을 드리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고 앞으로도 그것에 집중할 것"이라며 서비스 품질로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카카오가 고급화 전략을 선택했다면 SK플래닛은 지역 콜택시로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SK플래닛은 기사들이 'T맵 택시'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콜택시 회사와 콜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 지역 기존 콜택시 사업자인 나비콜, 하나모범 등과 제휴를 맺고 이 회사들의 호출 시스템과 T맵 택시의 콜 서비스를 연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서울 시내 1만1000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자동으로 T맵 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SK플래닛은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경기·부산·대구·대전·제주 등의 지역에서도 연계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역 택시 사업자를 이용하더라도 T맵 택시를 통한 콜 요청은 별도 콜비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기존 택시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 콜 사업자와의 지속 가능한 제휴 협력으로 T맵 택시 이용 승객들에게도 전국 단위로 훨씬 안정적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소중한 대화내용 한 곳에
카카오 '나와의 채팅' 선봬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에서 오고가는 소중한 기록들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할 수 있는 '나와의 채팅' 기능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은 소중한 사람과의 간직하고 싶은 대화 내용과 채널 탭에서 확인한 재미있는 콘텐츠 등을 모아 기록해 둘 수 있는 공간이다. 나만의 메모를 정리해 둘 수 있으며 개인적인 일정을 등록해 관리할 수도 있다.

본인의 미니 프로필에 새롭게 생성되는 '나와의 채팅' 버튼을 통해 채팅을 시작할 수 있다. 한번 생성된 채팅방은 일반 채팅방과 동일하게 채팅 탭에서 관리할 수 있다. 채팅방 이름은 프로필 상에 저장해 둔 이름과 동일하게 표시되며 방 설정에서 별도 변경도 가능하다.

또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나와의 채팅'에 옮겨 기록하고자 할 경우 해당 말풍선을 길게 누르면 표시되는 '나에게' 버튼을 통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NHN엔터, 모바일게임사에 60억 투자

블랙비어드·슈프림게임즈·A-33
스타트업 회사 3곳에 20억원씩

NHN엔터테인먼트가 전도유망한 모바일 게임사 3곳에 총 6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투자 대상인 3곳은 블랙비어드와 슈프림게임즈 및 A-33 등으로, 국내외 유명 게임사 출신의 실력있는 멤버들이 다수 포함된 스타트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NHN엔터는 각각 20억원씩 총 60억원의 투자를 마친 상황이다.

블랙비어드는 엔씨소프트 '블레이드&소울'의 핵심 시스템 기획과 개발을 담당한 강건우 대표를 필두로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수석 콘셉트 아티스트 출신 케빈 백 이사를 포함, 다년 간 게임 개발을 함께 해 온 팀원들로 구성됐다. 2013년 11월 설립돼 현재 SF 액션 RPG '디스토피아(가제)'를 개발 중이다.

슈프림게임즈는 황인정 대표를 중심으로 엔씨소프트와 웹젠, 블루사이드, 네오위즈 등 대형 게임사에서 평균 10년 이상 개발과 기획 업무를 담당한 인력들이 의기투합했다. MMORPG와 FPS 장르의 상용화 경험이 장점이다. 2016년 출시 예정인 프로젝트 'TOP(가제)'은 스마트 액션 시스템과 세로 플레이 모드가 특징인 액션 RPG다.

A-33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개발과 운영 전반을 담당했던 김동선 대표를 중심으로 주로 넥슨의 PC온라인·모바일 신규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인력들로 구성됐다. 유저간 실시간 대전이 가능한 모바일 FPS 게임 'Diving Soul(가제)'을 개발 중이다. /양성운 기자

LGU+ 'LG 넥서스 5X' 출시

요금제 선택 시 20만원 인하

LG유플러스가 구글의 레퍼런스 스마트폰 'LG 넥서스5X'를 21일 출시했다.

LG 넥서스5X는 16GB와 32GB 두가지 모델로 출시되며 색상은 카본(검정), 쿼츠(흰색) 등 2가지다. 출고가는 16GB 모델의 경우 47만5200원, 32GB 모델의 경우 53만5700원으로 책정됐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LG 넥서스5X 16GB 모델로 '뉴 음성무한 비디오 데이터 100' 요금제를 선택하면 24만2000원 공시지원금에 추가 지원금(15%) 3만6300원을 더해 20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2만원대 요금제에서 10만원 이상을, 5만원대 요금제에서는 20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제공해 고객의 스마트폰 구입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SKT-선일금고

스마트홈 연동 개발 협약

SK텔레콤이 금고제작업체인 선일금고제작과 스마트홈 연동 제품 개발에 대한 사업 제휴 양해각서(MOU)를 21일 체결했다.

선일금고는 국내 금고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1위 금고제작업체로, 회사명보다는 독수리금고(Eagle Safe), 루셀 등의 브랜드로 더 유명하다. 현재 전세계 80여개국에 다양한 라인업의 금고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세계 명화를 활용한 고객친화적 디자인의 제품과 홈쇼핑과 백화점을 활용해 금고의 대중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양사는 루셀 브랜드의 스마트금고에 SK텔레콤의 스마트홈 플랫폼을 연동할 계획이다. 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SK텔레콤 스마트홈 앱을 통해 금고의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도난이 감지될 경우 스마트홈 앱의 비상 알람 기능으로 위험 사실을 통보 받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비상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게 된다.

연동 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양사는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된 신제품뿐 아니라 구모델 구매 고객(일부 모델 한정)에게도 부품 변경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 MOU를 체결해 SK텔레콤 스마트홈과 연동된 전용상품을 개발 중인 에스원이나 SK텔레콤의 자회사 NSOK 등 출동 보안업체와 연계해 금고 구입 고객을 위한 전용 출동보안 상품도 동시에 개발할 계획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

금융지주사 3분기 성적표는

신한 6067억 순익 달성 '리딩뱅크' 안착

KB금융 4000억대 달성
지방銀 지주 실적 급증

올 3·4분기는 신한금융이 가장 좋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6000억원에 넘는 순이익을 달성하며 '리딩뱅크'에 올라설 전망이다. KB금융은 4000억원대로 신한금융을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매진한 하나금융의 경우 합병과 환율관련 비용발생으로 부진이 예상된다.

은행 전체로는 주로 예대 마진 차이를 의미하는 순이자마진(NIM)이 저금리 기조 로 작년 동기보다 줄어 들었지만 양호한 대출증가율, 대손충당금 적립 감소로 금융지주사의 올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각 금융지주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올해 3분기(7~9월)에 606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는 지난해 3분기(6320억원)보다 7.4% 증가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5년간 일관되게 추진한 리스크 관리 정책으로 3분기부터 그룹 대손비용률이 감소세로 전환(3분기 0.49%)하면서 꾸준한 이익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익이 462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5%, 전분기보다 15.5% 증가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은 KB금융은 작년 동기(4597억원)보다 6.40% 줄어든 430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위 신한금융과는 2478억원의 격차를 보이겠지만 2위자리는 무난할 전망이다.

영업이익 추정치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줄겠지만 5647억원이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 강혜승 연구원은 "금리 하락과 가계부채 관련 정책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하락을 제외하면 중장기 KB금융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개선되고 있다"면서 "자산건전성 개선에 따른 이익 안정성, 지배구조, 경영 연속성, 비은행 부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이익 비중 제고, 인력구조와 조직 영업력 등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작업으로 어수선했던 하나금융은 올 3·4분기 24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작년보다 16.18% 줄어든 것이다.

영업이익도 29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09% 감소세가 예상된다.

KDB대우증권 구용욱 연구원은 "순이자이익이 증가하고 충당금 부담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통합 비용으로 인해 경상적인 순이익 수준을 하회할 것이고 통합 비용이 4·4분기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실적 개선 기대가 타행대비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실적 전망이 가장 좋다.

3·4분기에 2743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2199억원보다 24.74% 늘어난 것이다.

영업이익도 29.82% 증가한 351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안타증권 박진영 연구원은 "우리은행의 이익성장은 양적으로도 크지만 질적으로도 우수하다"면서 "과거 실적 변동성의 원인이었던 경상적 대손비용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며 다섯번째로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과점주주 매각 방식까지 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금융지주 3분기 실적>

구분	2015년 3분기 실적 추정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신한지주	7,787	6,067	−4.79	−6.87
KB금융	5,647	4,303	−3.35	−6.4
하나금융지주	2,982	2,422	−23.09	−16.18
우리은행	3,510	2,743	29.82	24.74
JB금융지주	500	345	92.43	96.54
BNK금융지주	1,981	1,502	25.84	27.52
광주은행	115	84	20.07	16.11
기업은행	3,616	2,746	14.47	17.48
DGB금융지주	1,107	812	7.27	3.76

/자료=신한금융지주 및 에프앤가이드

'신용카드사 부가세 대리징수' 해프닝

기재부 "검토한 바 없다"
카드업계 "한시름 놓은 상황"

신용카드사가 카드결제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이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징수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1일 "세금을 걷는 국세청이 대리징수 방안의 현실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따지지 못한 것 같다"며 "대리징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나 비용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를 징수하려면 사업자별로 과세, 면세, 간이 등을 모두 구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정보를 카드사에 주지 않을뿐더러 줄 수도 없다"며 "대리징수를 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도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이 막연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A카드사 관계자는 "만약 대리징수가 시행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는 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며 "막연한 방안에 당황했다가 기재부의 부정에 한시름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B카드사 관계자는 "국세청 방안대로 2017년부터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단순한 예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끼치게 될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세청은 카드사들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돼 부가세를 대리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매출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기존 방식에서 카드사가 대리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부가세 탈루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재부는 카드사 대리징수가 국세청의 의견일 뿐, 사전협의는 물론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정부가 세금 징수 방식의 변경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여타 선진국의 경우에도 카드사 대리징수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필 기자

21일 중국 베이징 중국은행 본사에서 열린 중은삼성인수 출범식에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중앙 왼쪽), 천스칭 중국은행 행장(가운데), 차이찌엔짱 중국항공그룹 이사장(중앙 오른쪽) 등 각사 주요 경영진이 현판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 /삼성생명

삼성생명, 중국은행과 中 생보 본격 공략

합작사 '중은삼성인수' 출범
방카 통한 新성장동력 기대

삼성생명과 중국은행이 제휴한 중국 현지 생명보험사가 탄생했다.

삼성생명은 21일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은행 본사에서 새 합작사의 출범식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에는 삼성생명 김창수 사장과 중국은행 천스칭 행장, 중국항공그룹 차이찌엔짱 이사장 등 중은삼성인수의 주주사 경영진과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은삼성인수 지분은 중국은행이 51%로 가장 많고 이어 삼성생명 25%, 중국항공이 24%다. 중국은행은 지난해 총자산 2500조원, 순이익 29조원을 기록한 중국 4위(총자산 기준) 규모의 은행이다. 지점은 1만1000개, 직원은 30만명에 달한다.

중국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생명보험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삼성생명과의 합작사 출범을 계기로 중국 전역에서 생명보험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생명보험 산업은 지난해 수입보험료 1770억달러로, 세계 4위의 시장 규모다.

수입보험료의 채널별 비중은 방카슈랑스(은행연계보험)가 48%로 가장 높다. 설계사 채널은 41%를 차지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중국은행과의 합작 체결로 방카슈랑스가 최대 판매채널인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중국은행과의 시너지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생명보험 시장을 본격 공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KB손해보험
건강·생활 보장 하나로

KB손해보험은 21일 건강보장과 생활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KB加 더해주는 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이번 신상품은 △사망, 진단, 수술, 입원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장과 △비용, 재산,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생활보장을 하나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개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보장을 제공한다. 1종의 보험기간은80·100·110세 만기, 2종은 10·15·20년 만기로 운영한다. 일반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에는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준다. /이정필 기자

신용등급 줄 강등에 조선·건설사 좌불안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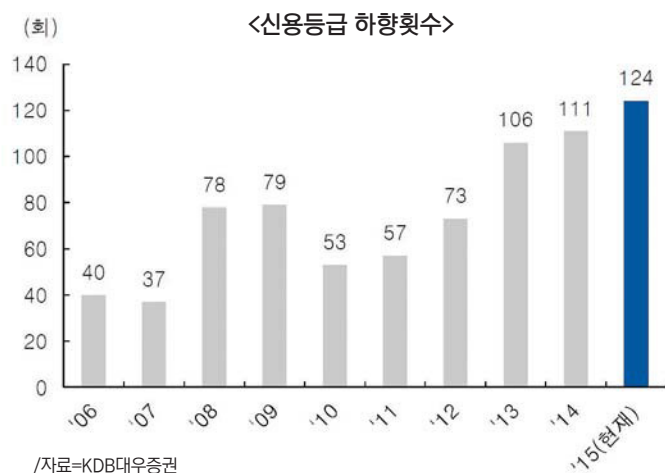
실적발표·정기평가 시즌 무더기 강등사태 우려

조선·건설·석유화학 등 등급 조정 위험 분류

/자료=KDB대우증권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5일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의 신용등급을 각각 'A-'(안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했다. 실적 악화와 과도한 재무부담 등이 근거였다. 한국기업평가(이하 한기평)는 포스코에너지 무보증사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내렸다. 한기평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경쟁 심화와 영업현금창출력 저하, 증설과 투자에 따른 재무부담 증가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아 온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불안이 회사채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빚 더미에 앉은 한계기업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정부가 부실 기업 퇴출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안 좋은 데다 기업 실적 발표와 신용평가사들의 정기평가 기간이 맞물리면서 신용등급이 추락해 자칫 좀비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등급 강등 이어질 것

21일 금융투자(IB)와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연초 이후 124 차례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다.

시장에서는 3·4분기 영업성적이 나쁜 기업을 중심으로 무더기 신용 강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안타증권 유태인 연구원은 "신용평가사들의 정기평가 시즌이 가까워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험적으로도 4~6월, 10~12월에 신용등급 하락이 많은 계절성을 나타냈다. 신평사들이 3월 말까지 발표된 결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4~6월 평정(평가해 결정)을 하고 있고, 8월 말까지 발표되는 반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10~12월 등급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조선업종과 건설,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이 크레디트스프레드로 표현되는 가격과 신용등급의 차이가 있고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조정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한다.

실제 신용등급 하향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가 SK건설과 태영건설의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렸다. 나이스(NICE)신용평가는 동국제강의 장기신용등급을 'BBB+'에서 두단계 낮은 'BBB-'로 내리고 등급 전망을 여전히 '부정적'(Negative)으로 유지했다. 한국신용평가는 롯데케미칼의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A+'로 부여하고 등급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기업들 자금조달 어쩌나

"선뜻 자금조달을 해주겠다는 금융회사가 없다. 잘못했다간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처지도 이해가 간다." 한 중견건설사 자금조달 임원의 하소연이다.

회사채 시장 전반에 온기가 돈다는데 이 곳엔 증권사 직원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올해 돌아온 빚은 급전으로 막았지만 앞으로 돌아올 만기를 어떻게 넘길 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실적부진에 신용 강등 우려까지 커진 기업들의 고민은 더 크다. '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금리 상승→투자 어려움→실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투자자 인식과 등급 간 괴리를 줄여 등급의 현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도 "차환발행이 여의치 않은 기업은 자산유동화 등 대체조달 수단을 모색해야 하는데 비우량 등급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좀비기업으로 낙인 찍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KDB대우증권 유명간 연구원은 "최근 한계기업 구조조정 이슈로 신용스프레드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계기업구조조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NH투자증권 직원이 'NH포트폴리오'를 개발해 소개하고 있다. /NH투자증권

NH투자證, 위험배분 모델 최초 도입

'포트폴리오 엔진' 개발

NH투자증권은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장기간 꾸준한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 현실적인 포트폴리오 모델인 'NH포트폴리오'를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기대수익률을 바탕으로 자산을 배분해 급격한 시장변동 위험에 노출됐던 포트폴리오에서 진화한 모델이다.

NH포트폴리오는 더 많은 수익 기회를 잡기 위해 국내외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수익추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위험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배분(Risk Budgeting) 모델을 업계 최초로 도입해 설계됐다. 위험배분 기법은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자산별 투자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자산관리를 크게 '여유자금 운용'과 '은퇴자금마련' 등 2개의 재무목적으로 구분하고 투자성향별, 특정니즈별, 연금 및 IRP용 포트폴리오 등 총 16개의 구체적인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투자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했다.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와 상품 전문가들이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금융상품들에 점수를 매겨주는 것도 특징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제한된 자금으로 기관투자자들처럼 투자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최영남 상품총괄 상무는 "NH포트폴리오는 당사의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개발과 사전운영에만 2년간 심혈을 기울인 솔루션"이라며 "NH포트폴리오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자산관리의 모범답안이 될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KB투자證 홍보실 '미디어센터'로 파격 변신

증권업계 최초 시도 동영상 제작·앱 공개

KB투자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홍보실을 '미디어센터'로 이름을 바꿨다. 이름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확대해 눈길을 끈다.

KB투자증권은 최근 홍보실을 미디어센터로 변경하고 그 첫 작품으로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인 'KB WM CAST'를 공개했다. KB WM CAST'는 KB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와 상품 기획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고객들의 자산관리 팁을 담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현재 미디어센터에서는 KB WM CAST에 제공되는 동영상을 직접 기획, 편성 제작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홍보실이나 공보실로 불렸다. 정부나 기업의 활동 상황을 국민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하지만 인터넷과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정보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광고를 싣는 일방적인 홍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쌍방향 소통 기능으로 홍보실의 업무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KB투자증권이 홍보실을 미디어센터로 이름을 바꾼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일방적인 홍보를 넘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담당하는 보다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다.

송지호 KB투자증권 미디어센터장은 "과거에는 기업 홍보의 기능이 언론 홍보에 치우쳐있었지만 현재는 사회공헌과 사내 커뮤니케이션 등 그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시대 흐름을 반영한 미디어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지난달 직접금융 조달액 11조원

전월보다 27.4% 증가 주식 발행↓·회사채↑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발행 등 직접금융 조달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규모는 총 10조9351억원으로 전월(8조5819억원)보다 27.4%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융채, 은행채 등 회사채 발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주식 발행은 줄고 일반회사채는 순상환됐다.

9월 중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은 4349억원으로 전월(9968억원) 대비 56.4%(5619억원) 감소했다.

LIG넥스원 등 10개 기업의 기업공개(IPO) 자금조달은 3273억원으로 전달(9건, 1863억원)보다 증가한 반면 금호하이텍 등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1076억원으로 전월(9건, 8105억원)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회사채 발행규모는 10조5002억원으로 전월(7조5851억원)보다 38.4%(2조9151억원) 크게 늘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감소했고 금융채·은행채·ABS 발행은 늘었다. 기업실적 부진, 신용등급 하락우려 및 금리관망세 등이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켜 3월 이후 순발행을 지속해오던 일반회사채 시장이 9월 들어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 콜차입 전면 금지로 초단기 자금조달을 위한 증권사 발행액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8월에 이어 9월에는 초단기 전단채 발행이 52조8000억원에서 50조6000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ROYAL PALACE
요즘 뜨는 실속형 아파텔 분양!!
1·2차 분양마감!
3·4차
마감임박!
아파텔,
주거문화를 바꾸다!
전세대 2룸 or 3룸 + 1거실
(모델하우스 개관 중)
수도권 신도시 최저분양가 590만원대
주거는 100%만족! 투자는 200%만족!
서울대국제캠퍼스
층간소음 無! 화재걱정 無! 세대간층고 3M! 아파트보다 저렴한 분양가!
1% 저금리시대 투자대안! 3,000만원 투자로 月70만원을 번다.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45.7만명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저비용관리비 지역냉·난방 시스템적용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수도권 신도시 최저 분양가 590만원대 (3.3m² 당)
층간소음無 소닉스시스템 시공
화재위험無 LG하우시스 시공
중도금 60% 무이자
입지 엘리트
송도신도시, 인천논현, 송산 그린시티를 잇는 서해안개발의 미래비전 한가운데 위치
45만명 시흥중심개발지, 단지 인근 7만평 배곧중앙공원과 6km수변공원의 힐링환경
생활 엘리트
단지 인근 서울대 이전(병원 포함), 신세계아울렛,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 입점
초교5, 중학교2, 고교2 인접(일부 서울대 교육지원),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입점
교통 엘리트
4호선 오이도역 1km, 수인선 월곶역 3km 인접, 서해안로–군자로 및 월곶대교 확장
제3경인고속도로(정왕IC), 영동고속도로(월곶IC), 서해안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인접
수요 엘리트
시화·반월공단, 남동공단 근로자 약 38만 여명 근로자가 집중하는 풍부한 수요
배곧신도시 서울대, 아울렛 종사자 약 7280여명, 시화MTV 약 7만여명 고용창출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한국경제
시흥 배곧, 교육특구로
경기도·서울대 협약 체결
2015년 4월 6일 발표
영등포 청과시장 사거리
영등포시장 사거리
영등포시장역 (지하철5호선)
모델하우스
영등포소방서
타임스퀘어
1호선 영등포역
문의전화
02)6334-9395
시행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 다인건설(주) 신탁 KOREA rust 코리아신탁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 청약방법 |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 청약금 : 100만원 ■ 예금주 : (주)로얄 * 미계약시 청약금 전부 환불됨.
대학가상권, 신도시상권, 중심상권의 최대 수혜지!
상가 전용실 데크 서비스 제공
상가 층고 5.5m~7m
분양면적 보다 넓은 전용면적 로얄팰리스 상가 특별분양!! 신도시 상권·대학가 상권·스퀘어가든 상권

‘착한 분양가’ 첫인상 심는 건설사들

파주 운정·김포 한강 등 첫 진출 대우·이랜드 주변 시세보다 값 낮춰

건설업체가 ‘착한 분양가’로 수요층을 공략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고객을 끌어 들이고 있는 것.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한양, 이랜드건설은 이달 경기도 운정신도시와 한강신도시, 에코시티, 다산신도시 등에서 명품 단지를 선보인다.

대우건설은 이달 파주 운정신도시 A25블록에서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운정신도시 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푸르지오 아파트다. 1956가구 모두 일반에 공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000만원 초반이다. 인근에서 최근 공급된 단지는 3.3㎡당 1100만원대여서 가격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전용면적은 74㎡와 84㎡ 등 100% 중소형이다. 길을 건너지 않고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갖췄다. 단지 주변으로 도보 3분 거리에 운정고가 있으며 신설초등학교(예정)와 새말중학교(공사중)도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내 첫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	시공사
김포 한강신도시	이랜드 타운힐스	72~84	550	이랜드건설
강원 동해시	동해 북삼 하우스디	59~84	238	대보건설
전주 에코시티	에코시티 데시앙	59~104	1380	태영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74, 84	1956	대우건설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	74~84	640	(주)한양
남양주 별내지구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	84	307	효성·진흥기업
평택 송담택지지구	평택 송담 지엔하임	59~84	1073	문장건설

태영건설은 10년 만에 개발되는 전주산업단지 에코시티에서 ‘에코시티 데시앙’을 분양한다. 에코시티자이, 에코시티더샵과 더불어 지역에 태영이 처음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다. 4블록 720가구(전용면적 59~84㎡), 5블록 662가구(59~104㎡) 2개 블록 1382가구 규모다.

한양은 이달 중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B-8블록에서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15층 13개동 64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된다. 전세대가 중소형으로만 구성됐으며 틈새평면도 제공된다. 약 10만여㎡의 왕숙천 수변공원 예정부지가 단지와 가까워 조망(일부세대)이 좋다.

이랜드건설은 이달 한강신도시 Ab-12블록에서 전체 550가구, 전용면적 기준 72~84㎡로 구성된 복합단지 ‘이랜드 타운힐스’를 공급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900만원대에 책정될 예정이다. 김포지역에서 공급된 3.3㎡당 1030만원(평균 분양가)보다 저렴하다.

단지는 전 가구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다.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팬트리동선, 복층으로 구성된 펜트하우스 등의 혁신평면은 물론 단지 내 4개의 테마가든과 유러피안 키즈빌리지 등이 들어선다. 단지 외부로는 운양역, 초중고교, 공원 등이 가깝다. 오는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운양역(가칭)까지 걸어서 약 10분거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처음 진출할 때는 지역민에게 강한 인상을 줘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후속 분양까지 이어갈 수 있어 건설사들이 앞다퉈 다양한 특화 설계와 고급 시설을 도입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내 첫 브랜드 아파트는 일대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수요자의 관심도 높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SK건설, 탄자니아 초교에 물탱크 설치

희망댓글 캠페인 기금 마련

SK건설은 21일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음트와라 지역의 음텐다치(Mtendachi) 초등학교에 10t 짜리 물탱크를 설치·기부했다고 밝혔다.

SK건설은 씻을 물이 부족해 트라코마에 감염된 아이들이 많다는 사연을 하트하트재단을 통해 전해 듣고 물탱크 기증에 동참하게 됐다.

트라코마는 주로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돼 실명까지 이르게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얼굴과 손만 깨끗한 물로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

SK건설은 사내 인트라넷 ‘희망댓글 캠페인’을 통해 물탱크 설치 기금을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사내 게시판 사연에 댓글을 달면 1000원씩 기금이 모금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에는 임직원 2700여명이 참여해 550만원이 모금됐다.

탄자니아 음텐다치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수된 물을 들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SK건설

한편 SK건설은 2013년 이후 사내 희망댓글 캠페인을 통해 마다가스카르에 급식소 2개를 기부했고 지난해에는 탄자니아의 한 초등학교에 5t짜리 물탱크 2개를 설치·기부했다. /박상길 기자

대우건설, 업계 첫 위기관리 국제표준 획득 대우건설은 위기관리 국제표준인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O 22301 인증은 위기관리·사업 연속성에 관한 국제 표준이다. 재해 또는 테러, 지역 분쟁 등으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최단 시간 내 핵심 업무를 복구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의 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하고 영국표준협회(BSI)가 인증·심사해 공인하는 국제 인증이다. 지홍근 대우건설 HSE-Q실장(왼쪽 여섯 번째)과 BSI Korea 천정기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ISO 22301 인증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우건설

교통·교육·업무… 생활 인프라 총집결

포스코건설 ‘대현 더샵’ 분양

포스코건설은 11월 울산 남구 대현동 일대에 ‘대현 더샵’(조감도)을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하 3층~지상 32층 11개동, 전용면적 68~121㎡ 1180가구다.

▲68㎡(A·B·C) 335가구 ▲84㎡(A·B·C·D) 812가구 ▲121㎡(A·B·C·D) 33가구 등 중소형이 전체 97%가량을 차지한다. 대현 더샵은 교통·교육·편의·공원·업무 등 생활 인프라를 한번에 누릴 수 있다.

인근에 울산 중심을 통과하는 번영로·신선로·수암로 등이 있어 중심 상업지역으로 접근이 쉽다. 또 한 100m 거리에 8개 노선이 지나는 버스정류장도 있어 울산 각지로 이동하기 쉽다. 단지 바로 옆으로 용연초, 야음중, 대현고, 신선여고 등의 교육시범화단지를 비롯해 반경 500m 이내 7개 초·중·고교가 있다.

입주는 오는 2018년 8월 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다음달 울산 남구 번영로 82(달동 1297-1)에 오픈한다. /박상길 기자

대형마트 품은 단지, 콧대 높아진다

상권 발달·편의시설 확충 마트 오픈 뒤 매매가 쑥쑥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유통시설 이용이 편리한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대형마트는 교통여건과 상주인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조성돼 대부분 문화나 여가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고용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몰려 집값과 임대시세 상승률이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3년 11월 홈플러스 상봉점이 인근에 생긴 한일써너스빌과 태영상봉동데시앙은 가구수와 입주시기가 비슷했지만 마트 접근성에 따라 집값 상승폭의 희비가 엇갈렸다.

홈플러스 상봉점이 길 건너에 생긴 ‘한일써너스빌’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는 2013년 대비 올해 10월 5000만원 올랐다. 홈플러스 상봉점이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태영상봉동데시앙’이 같은 기간 2000만원 오른 것에 비해 2.5배 수준이다.

롯데마트 판교점이 2013년 7월 출점한 판교신도시에서도 마트와 인접한 단지의 시세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롯데마트 판교점 인근 봇들마을 9단지 ‘금호어울림’ 전용 101㎡은 오픈 시점 대비 10월 집값이 8500만원 올랐지만 롯데마트와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는 백현마을 9단지 ‘휴먼시아 e편한세상’은 매매가가 550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형마트와 가까운 분양단지가 인기를 누리자 연말까지 공급되는 수해 단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말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서 선보일 ‘안산 파크 푸르지오’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전용 59~101㎡ 1129가구 중 421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한국토지신탁이 이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분양 예정인 ‘동래 지웰’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3곳이 가깝다. 전용 59~145㎡ 219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한화건설이 이달 말 분양에 나설 예정인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주변에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연면적 15만9759㎡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롯데몰이 내년 들어선다.

아파트 전용 59㎡ 142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19~21㎡ 302실로 구성된다. 3호선 구파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시청과 광화문 등 도심 업무 지역에 20분내 도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발달하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된다”며 “이에 따라 전 월세 등 주거선호 지역이 돼 집값이 잘 오를 뿐만 아니라 환금성도 좋아 시세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롯데마트, 식품 신선도 높이니 매출도 쑥쑥

서울 봉래동에 위치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한우데이'를 기념해 한우를 홍보하고 있다. /롯데마트

육류부문 고객 만족도·매출 상승세 뚜렷
전년比 오리 78.6%·진심한우 15.9% 증가

롯데마트의 '신선식품 품질혁신' 성과가 육류부문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품질혁신 정책이 국가에서 장려하는 한우데이, 오리데이 등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고객 만족도는 물론 매출 신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

21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4월 '신선식품 품질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신선식품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한 결과 한우, 오리 등 육류 부문에서 매출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식품 품질혁신위원회는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가 신선식품의 품질혁신을 육류뿐만 아니라 과일, 채소, 생선 등에 상품선별, 진열 기한 엄수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같은 신선식품 차별화로 롯데마트 오리고기 매출의 97.1%를 차지하고 있는 훈제오리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8.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오리고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었다.

오리고기의 매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롯데마트는 품질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롯데마트는 훈제오리 전 품목을 1등급 이상의 원료육으로 가공한 제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그동안 훈제오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제정한 품질판정이 강제성이 없어 생산업체가 임의로 오리고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다른 업체와 달리 오리고기 전량을 1등급 이상의 원료육 가공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품질 판정 수수료 때문에 부담을 갖는 생산업체들도 롯데마트가 1등급 이상의 원료육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한우 역시 품질혁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소고기의 경우 1+등급 이상의 상품만 판매하는 브랜드 '진심 한우'를 운영하고 있다. 진심한우는 경기불황등으로 한우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임을 강조하면서 나홀로 매출상승을 이끌고 있다. 롯데마트의 3~9월 한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했지만 '진심 한우'는 15.9%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내달 1일 '한우데이'를 맞아 진심한우를 앞세운 한우매출 증대를 꾀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한우데이 할인 행사는 롯데마트 연간 한우 판매량의 10%가 팔릴 정도로 규모가 큰 행사"라며 "아직 할인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주일 간 진행될 한우데이 할인 행사는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품질 차별화 브랜드 '웰팜 진심한돈'을 론칭했다. 이 브랜드는 올해 1~9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9.9% 증가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한돈데이·오리데이 할인 행사의 경우에는 시행한지가 얼마 안 돼 아직까지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향후 마케팅을 통해 우수한 품질 등급의 육류를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롯데 '나가라' vs 동주 '못 나가' 신경전

SDJ코퍼레이션

"총괄회장 승낙 받아 출입" 집무실 직원, 개인적 채용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 측이 호텔롯데의 퇴거 요구를 거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격호총괄회장의 관리하에 있는 34층에서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날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 있는 롯데그룹 직원이 아닌 사람의 퇴거 요구와 함께 불응 시 민형사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정당한 근무와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라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직원들의 근무와 출입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배치된 비서와 경호직원 전원 퇴거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심복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총괄회장을 인질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본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던 비서실장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배치했다"며 "투숙객에게 피해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빈 회장의 측근 이일민 비서실장(전무) 해임과 관련, "적법한 조치였다"며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신임 비서실장 채용은 신변관리를 포함해 불법적으로 침해된 권리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롯데호텔 직원이 아니므로 롯데인사규정에 따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용기 기자

20일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박승권 노조위원장(가운데 왼쪽), 정종표 대표(가운데 오른쪽), 임직원 등이 임금협약 조인식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노사, 임금협약 최종 합의

홈플러스테스코 노사가 2015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홈플러스노조는 기존 홈플러스와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테스코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회사는 전날 임금협약 조인식을 갖고 7월 1일자로 담당(파트타임 근로자) 급여는 평균 5.3%, 선임 급여는 4.0% 인상키로 했다.

또 성과급 절반과 명절상여 일정 부분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시급제로 운영하던 담당의 급여체계를 정규직과 같은 월급제로 바꾸는데 합의했다. 이번 임금인상, 기본급 확대, 월급제 도입 등을 통해 홈플러스에 1년 근속한 8시간 근무 계산원 기준 월 급여는 기존 대비 최소 1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화수 홈플러스 인사부문장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홈플러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갈 핵심 주체인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과 동기부여를 고려해 과감한 처우투자를 결정했다"며 "업무 간소화, 수평적인 조직문화 구축 등을 통해서도 직원들이 더욱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롯데면세점, 유커 1만5000명 유치 협약

내년 잠실월드타워점 방문 경제효과 1500억원 이를 듯

롯데면세점은 내년 5월 3차례에 걸쳐 중국 남경중맥과기발전유한공사의 임직원 1만5000여명이 서울 잠실 월드타워점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이들이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직접 생산효과 500억여원, 파급효과는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롯데면세점은 전날 오후 남경중맥과기발전유한공사의 중국 에이전트인 상해신유국제사유한공사, 한국 여행사인 화방관광과 3사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향후 서울 관광코스·일정 등 주요 사항을 협의할 계획이다.

롯데면세점은 한국을 방문하는 남경중맥과기발전유한공사 직원들을 위해 롯데면세점의 한류스타 모델 환영인사 메시지와 다양한 쇼핑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2011년 바오젠 그룹 임직원 1만명을 제주로 유치한 바 있다. 당시 관광객 유치로 발생한 경제효과는 직접 생산효과 410억원, 파급효과 9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용기 기자

20일 김보준 롯데면세점 마케팅부문장(왼쪽부터), 쩌우 이후이 상해신유국제사유한공사 총경리, 한무량 화방관광 사장이 3사를 대표해 MOU를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엄마와 딸 페스티벌' 진행

현대백화점이 오는 25일까지 전국 15개점에서 '제 14회 엄마와 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엄마와 딸 페스티벌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2002년부터 14년째 진행하고 있다.

엄마와 딸의 여행을 지원하는 해외여행이벤트는 점별 사은데스크에 경품 응모권을 제출하거나 키오스크에 현대백화점카드를 센싱해 응모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응모가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스페인 9일(1쌍), 프랑스 7일(2쌍), 홍콩·마카오 4일(4쌍) 등 총 7쌍을 선정해 왕복 항공권, 전 일정 호텔 숙박·식사 일체가 제공된다. 여행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중 당첨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새로 나왔어요

오뚜기 '진짬뽕'
액상소스로 중국집 맛 재현

오뚜기가 진한 해물맛 짬뽕소스로 맛을 낸 '진짬뽕(사진)'을 출시했다.

오뚜기측은 신제품 '진짬뽕'은 기존의 라면 제품보다 두껍고 넓은 면(3㎜)을 사용해 중화면 특유의 맛을 살렸으며 액상 그대로의 짬뽕소스를 사용하여 기존의 분말스프와 차별화되는 짬뽕의 깊고 진한 국물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스프는 야채와 고추기름을 센불에서 볶아낸 직화소스로 불맛을 강조했다. /유현희 기자

르꼬끄 '듀라썸'
고기능성 소재 보온성 탁월

스포츠 브랜드 르꼬끄 스포르티브(이하 르꼬끄)가 고기능성 소재와 프렌치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한 '듀라썸(Duratherm·사진)' 다운을 출시한다.

르꼬끄의 듀라썸 다운은 충전재로 사용된 오리털 자체에 습기나 기름 등 오염물질을 막아내는 코팅 기술을 적용해 보온성을 살리고, 형태 복원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듀라썸 라인업은 3M 재귀반사 프린트를 디테일로 흐린 날씨나 밤에도 안전한 활동이 가능하다. /유현희 기자

서울신라호텔
미슐랭 1등급 장어요리 선사

서울신라호텔은 레스토랑 평가서 '미슐랭 가이드'에서 장어요리로는 가장 높은 ★(1스타) 등급을 받은 장어 메뉴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장어 요리는 미슐랭 ★를 4년 연속으로 획득한 장어 요리 전문점의 오너 셰프 '세키네 준'이 요리한 장어 구이(사진)와 장어 덮밥 등이다.

서울신라호텔 일식당 '아리아께'에서 25일부터 27일까지 여는 이번 초청 프로모션은 생선회, 장어구이, 장어덮밥 등으로 이루어진 오찬 코스(18만원)와 만찬 코스(24만원) 외에도 각종 단품메뉴(10만원)로 구성돼 있다. /정용기 기자

먹거리부터 화장품까지… 약용식물, 안쓰이는데 없네

노니·와송·어성초·병풀… 특유의 효능성분추출·가공 음료·마스크팩·연고 등 개발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헬스드림 홍삼노니진액, 자연의벗 다자연어성초팩, 퓨어힐스 센텔라스카연고, 일동생활건강 와송사랑바위솔, 닥터스튜어트 밀크씨슬.

약용식물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와 차가 늘고 있다. 또 약용식물의 효능을 담은 화장품까지 등장해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헬스드림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슈퍼푸드로 떠오르고 있는 열대 식물 노니(Noni)를 활용한 '홍삼노니진액'을 21일 출시했다.

헬스드림의 홍삼노니진액은 인공 화학 성분을 완전 배제하고 노니농축액 100%와 6년근 홍삼 농축액을 혼합해 만든 제품이다. 노니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열대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세포 재생 능력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이리도이드' 15종을 비롯해 세포활성물질 제로닌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홍삼노니진액은 대표적인 노니 원산지인 베트남의 노니 재배 농장과 협력해 고품질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다.

일동제약 자회사인 일동생활건강은 신비의 약초로 불리는 와송이 함유된 '와송사랑 바위솔'을 내놨다. '와송'은 플라보노이드 12종 트리테르펜류 7종, 스테롤류 2종 등을 포함, 항산화·면역증진에 필요한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된 토종식물이다. 항암·항아토피·면역증진 등에 도움을 주는 약초로도 알려져 있다. 일동생활건강의 와송사랑 바위솔 과립 제품은 와송추출농축액을 주원료로 90포 한 박스에 약 7.3㎏의 생와송이 포함된 제품이다.

기능성 허브티 브랜드 '닥터스튜어트'는 각종 허브를 사용한 티백 제품을 내놓고 있다. 닥터스튜어트는 현대 허브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식물학자 말콤스튜어트 박사의 오랜 연구결과를 집약한 브랜드다. 유기농 재배 협회 인증을 받은 허브만 엄선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약용식물로 알려진 밀크씨슬 티는 몸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간 해독에 도움을 주는 등 디톡스 효과가 입소문이 나면서 특히 인기를 얻고 있다.

약용식물은 건강기능식품과 차(Tea)뿐만 아니라 화장품 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기업 '자연의벗'은 피부결을 정돈해주고 청결한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어성초를 활용한 유기농 마스크팩을 출시했다. 어성초는 소염작용과 항균·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약초로 알려져 있다. 자연의벗이 선보이는 어성초 유기농 마스크팩은 유기농 인증원료만 사용하고 파라벤, 에탄올 등 화학성분 일곱 가지를 첨가하지 않았다. 또한 천연섬유인 텐셀을 활용해 사용감이 부드럽고 밀착력을 높였다. 텐셀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유래한 100% 천연의 신개념 기능성 소재다.

상처를 입은 호랑이가 뒹굴어 치료하는 것을 보고 '호랑이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병풀은 예로부터 염증치료 기능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병풀은 '마데카식산'이라는 소염효과가 높은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화장품 전문업체 퓨어힐스는 병풀 속 마데카식산 성분을 함유한 '센텔라스카 연고'를 내놨다. 센텔라스카 연고는 상처 재생연고 동일 성분으로 피부의 상처를 치료하고 재생하는데 도움을 준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맛있는 '호두레시피' 공개합니다 캘리포니아 호두협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맛있게 즐기는 호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골프웨어에 '새빨간 혓바닥' 찍는다

벤제프, 롤링스톤즈와 계약

<롤링스톤즈 공식 로고>

골프웨어 브랜드 벤제프가 락의 전설 롤링스톤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벤제프

골프웨어 브랜드 벤제프가 록의 전설 '롤링스톤즈'와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벤제프는 롤링스톤즈의 리더인 믹 재거의 커다란 입을 형상화한 공식 로고 '새빨간 혓바닥' 그래픽을 남성 골프웨어에 적용해 내년 1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벤제프는 '헬로키티'를 활용한 여성 골프웨어 라인에 펑키한 요소를 가진 롤링스톤즈의 로고를 활용한 남성 골프웨어 라인이 가세해 개성이 강한 신세대부터 새로운 골프웨어 스타일을 찾는 중년 골퍼까지 다양한 계층 공략이 가능해졌다.

벤제프 측은 "2015년 출시된 골프웨어 벤제프는 최근 종영된 드라마 '미세스캅' 등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김희애를 모델로 발탁하고 젊은 감각의 스타일과 다양한 마케팅으로 골퍼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골프를 즐기는 연령대가 낮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 타깃 공략을 위한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별다방 프라푸치노 창시자·월드바리스타 챔피언…

세계 커피 리더, 한국 온다

내달 포럼 참석 위해 방한

조지하웰 사샤세스틱

여름철 인기있는 얼음 커피는 누가 최초로 만들었을까. 조지하웰커피의 CEO인 조지하웰이 그 주인공이다. 조지하웰은 스타벅스의 여름 대표 음료 메뉴인 프라푸치노의 창시자다.

21일 전시전문기업 엑스포럼에 따르면 조지하웰을 비롯해 2015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우승자 사샤 세스틱, 브렛 스미스 카운터컬처커피 회장 등이 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4회 월드커피리더스포럼 2015(World Coffee Leaders Forum 2015)' 참석을 위해 대거 방한한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은 세계 커피 산업 리더들이 모여 커피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와 동향에 대해 논하고 커피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커피 국제 회의이다.

이들은 포럼에서 '커피, 그 이상의 의미-커피 속 브랜드와 추구 가치'라는 주제 아래 커피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공유하고 심도 깊은 토의를 할 예정이다. 자신이 가진 커피 기술을 전달하는 테크니컬 세션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월드커피리더스포럼에는 ▲조지 하웰 조지하웰커피 회장 ▲브렛 스미스 카운터컬처커피 회장 ▲조셉 브로스키 나인티플러스커피 회장 ▲헤더 워드 미국스페셜티커피협회(SCAA) 연구 분석가 ▲사샤 세스틱 (Sasa Sestic) 2015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챔피언 ▲케일럽 차(Caleb Cha) 2015 월드라떼아트챔피언십 챔피언이 참석할 예정이다.

엑스포럼 신현대 대표는 "매년 세계 커피 시장을 이끄는 주요인물들이 월드커피리더스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다. 아시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월드커피리더스포럼은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아시아 커피시장과 세계 커피 업계에 대한 전문 지식 공유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라며 "이번 행사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 나라의 커피 전문가들의 교류를 지원해 커피 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인터뷰| 서울메트로 최우수 기관사 이종원 씨

“고객 안전만 생각 했어요”

2호선 운행 20년차 베테랑 열차 고장시 원인파악 등 응급대처 능력 높은 점수

“고객을 안전하게 모시자는 마음가짐으로 근무에 임했던 것이 최우수 기관사의 영예를 얻게 된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2015년 서울메트로 최우수 기관사 선발대회에서 동대문승무사업소에 근무하는 이종원(43)씨가 최우수 기관사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기관사인 매형의 소개로 같은 직업을 택하게 된 이종원씨는 1995년 입사해 현재 2호선의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20년차 베테랑 기관사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열차 고장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고장조치 능력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열차 승무원 대상 우수 안내방송 대회에서도 입상한 경력이 있다.

2015년 서울메트로 최우수 기관사로 선정된 동대문승무사업소 이종원씨.

최우수 기관사 선발대회는 안전하고 정확한 열차운행을 책임지는 기관사들의 운전기량을 향상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1984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선발대회에는 8개 승무사업소에서 엄선된 16명의 기관사가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운전취급규정 등 이론 평가와 정위치 정차나 속도조절과 같은 운전 능력 평가, 차량고장 시 응급조치 과정을 평가하는 고장조치 능력 평가 등 총 40여 가지 항목에 걸쳐 평가를 받았다.

이종원 기관사는 “기관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서 매우 기쁘고 동대문승무사업소 직원들과 가족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불금’ 강남역, ‘해피존’에서 택시 타세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 심야 6개소서 ‘임시승차대’ 운영

23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금요일 밤 강남역~신논현역 구간(770m)에서 택시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임시 승차대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법인·개인택시조합과 금요일 밤 자정 이후 택시 승차를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승차대 '택시 해피존'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역 '택시 해피존'은 택시를 타려는 시민이 강남역~신논현역 구간 임시 승차대 6개소로 와서 대기하면 줄 서 있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승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금요일 심야(23시~다음날 02시)에만 운영된다.

강남역~신논현역 구간 내 방향별 3개소 씩, 양 방향 총 6개소

서울 강남역 택시 임시승차대
'택시 해피존' 운영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2시 운영

가 운영되며 야간에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발광형 에어간판을 세울 예정이다.

다만 '택시 해피존'에서는 콜택시 호출은 불가능하고 사업구역 외 영업 문제로 인해 타 시·도 택시는 승객을 태울 수가 없다. 해피존 밖에서 귀로 영업은 종전처럼 가능하다.

시는 '택시 해피존' 운영으로 먼저 나와 택시를 기다리던 시민 앞에서 다른 사람이 차를 가로채는 택시 새치기가 사라지고 심야시간대 수요에 비해 부족했던 택시 공급 증가, 수시로 발생했던 승차거부·골라 태우기 근절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차도로 들어가 택시를 잡는 일이 사라져 시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해피존'에 원활한 택시 공급과 강남역 주변 택시 승차난의 획기적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해피존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염지은 기자

이타임월드 ‘다니엘 웰링턴’ 입점 기념 밴드 증정

이타임월드는 스웨덴 워치 브랜드 '다니엘 웰링턴(Daniel Wellington)'(사진) 입점을 기념해 연말까지 클래식&클래시 컬렉션 중 36㎜, 41㎜ 제품 구매 고객에 한해 프랑스 국기 NATO(나토) 밴드 또는 쉐부르노 블랙, 브라운 밴드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다니엘 웰링턴은 이타임월드 공식 쇼핑몰(www.etimeworld.co.kr)과 신촌점 매장을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이타임월드 신촌점은 올해로 13주년을 맞이하는 온-오프라인 시계 브랜드 멀티 샵으로 파슬 코리아, 티보스, 스타일리더, 우림FMG, 삼정시계, 스타럭스, 코이컴퍼니, 자스페로코리아 등 한국 지사 및 공식 수입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타임월드 신촌점은 ▲다니엘 웰링턴 ▲버버리 ▲어니스트 보렐 등의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다.

이타임월드에서 판매하는 브랜드는 본사 서비스센터를 통한 보증이 가능하며 전국 백화점매장을 이용하여 수리접수가 가능하다. 02-313-4108

/유현희 기자

장봉도 해안둘레길. /공항철도

장봉도 둘레길서 마주한 태고의 신비

공항철도 운서역서 뱃길 30분 당일치기 섬 여행 명소 떠올라

해식 동굴·물결문양 바위 등 ‘윤옥골~가막머리’ 코스 압권

가을은 트래킹 하기에 좋다. 특히 탁트인 전망을 즐기는 섬 트래킹은 청명한 가을날씨에 더욱 묘미가 있다.

공항철도 운서역에서 가까운 장봉도(인천시 옹진군)는 해안둘레길이 잘 조성돼 있다. 선착장에서 뱃길로 30여 분이면 도착해 당일 일정의 섬여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옹암선착장 인근 옹암해변에서 시작하는 둘레길은 최근 섬 끝지점인 가막머리 전망대까지 약 13~15㎞ 길이가 완전 개통됐다.

해안둘레길은 옹암해변~한들해변 3.95㎞가 가장 먼저 조성된데 이어 한들해변~야달선착장~건어장(장봉4리)~윤옥골이 개통됐고 이번에 마지막 윤옥골~가막머리 전망대 구간 2.1㎞ 둘레길이 조성됐다.

윤옥골~가막머리 전망대 구간은 그동안 썰물때만 해안을 따라 트래킹이 가능했다. 밀물때면 이 구간 해안길 절반가량이 바닷물속에 잠기기 때문이다. 이번 둘레길 개통으로 윤옥골~가막머리 전망대 구간도 언제든 트래킹을 즐길수 있게 됐다. 새로 조성된 해안둘레길은 윤옥골을 조금 지난후 산쪽으로 길이 나 있다. 가막머리 전망대까지 2.1㎞ 거리로 조성된 둘레길은 해안선과 거의 맞닿듯 이어져 바다전망이 특히 빼어나다. 아름다운 섬들과 고깃배, 해안절벽이 그림처럼 펼쳐지며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둘레길 곳곳에 해안으로 갈수 있는 샛길이 나 있다.

윤옥골~가막머리의 해안은 곳곳엔 협곡과 해식 동굴, 마치 파도가 한순간에 굳어버린 듯한 기이한 형태의 바위들과 물결문양의 주름바위, 조개껍질 모양 바위 등이 태고의 신비로움을 안겨주니 잠시 해안길도 걸어보자.

해안둘레길을 따라 가막머리 전망대에 도착한 뒤 선착장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등산로를 이용하자. 둘레길보다 평탄하고 탁트인 전망과 숲길이 이어져 또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 40여 분 정도 가벼운 능선 산행을 한후 장봉4리로 하산해 버스를 타고 선착장으로 가면 된다.

◆ 장봉도 여행정보

공항철도 운서역 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201, 307번 타면 10여분후 삼목선착장 도착. 선착장에서 한시간 간격으로 매시 40분(세종해운) 또는 2시간 간격으로 매시 30분에 배 출발. 장봉도까지 30~40분 소요.

/염지은 기자

이대목동병원, 우즈벡 의료시장 공략 속도

현지 한인회와 진료협정 정기 건강진단 기관 지정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이 우즈베키스탄 의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화의료원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한인회(회장 이흑연)와 진료협정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원장실에서 진행된 협정식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과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이흑연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장과 김현조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이대목동병원은 우즈베키스탄 한인회로부터 정기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됐다.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회원들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한인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등에 지정병원인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소개와 홍보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승철 이화의료원장(오른쪽부터),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이흑연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장이 지난 19일 의료원장실에서 체결된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와의 진료협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장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중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이화의료원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요지로 의료 시장 공략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진 의료 기술 전수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우리나라 의료 수출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말했다.

/염지은 기자

star bag

미니앨범 커버 공개

가수 **아이유**가 새 미니앨범 '챗셔(CHAT-SHIRE)'의 커버를 공개했다. 편안히 누워 있는 아이유의 풍성한 머리칼 위에 그려진 지도의 이미지로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새 앨범은 23일 공개된다.

여고생 완벽 변신

배우 **신민아**가 KBS2 새 월화극 '오 마이 비너스'에서 여고생으로 변신한다. 지난 17일 서울 남산 야외식물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촬영을 마쳤다. 드라마는 다음달 16일 첫 방송된다.

싸이더스HQ 새 둥지

배우 **조동혁**이 싸이더스HQ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소속사 측은 "조동혁의연기 열정을 더 불태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동혁은 다음달 영화 '세상끝의 사랑'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말 단독 공연 개최

여성 듀오 **옥상달빛**이 오는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연말 공연 '수고했어, 올해도'를 개최한다. 티켓은 30일 정오부터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된다.

오디션 심사위원

가수 **바다**가 '레일리 코리아 2015'의 심사위원을맡는다. 중국 패션·뷰티 미디어 레일리가 10년 동안 진행해온 스타 오디션이다. 다음달 4일 한국 본선, 10일 중국 베이징 결선에서 심사와 축하공연을 한다.

식지 않은 음악 열정… 13년 만에 재결합

완전체로 컴백한 클릭비

클릭비(강후·오종혁·김상혁·우연석·유호석·하현곤·노민혁)의 완전체 컴백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반가움과 궁금증이 교차했다. 13년 만의 컴백은 반가웠다. 다만 90년대 스타들의 연이은 복귀를 보며 선택한 결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클릭비 멤버들은 "상업적인 성공을 생각한 컴백은 아니다. 팬이 바란 만큼 우리도 무대 위에서 함께 하기를 갈구했다"고 입을 모았다. 13년 만에 다시 뭉친 이들 7명에게서 느껴진 것은 단 하나, 음악을 향한 강한 열정이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후, 오종혁, 김상혁, 우연석, 노민혁, 하현곤, 유호석.

내달 20일 코엑스서 콘서트
활동 중단 후에도 돈독하게
음원 경쟁보다 음악에 집중
공연으로 우리 색깔 나누고파

1999년 데뷔한 클릭비는 댄스 중심의 아이돌 시장에 댄스와 밴드를 결합한 색다른 콘셉트로 주목을 받았다. '드리밍' '환영문' '백전무패'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많은 팬층을 확보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유호석·노민혁·하현곤이 탈퇴했고 다른 멤버들도 개인 활동을 하면서 클릭비는 추억 속의 그룹이 됐다. 그러나 이들 7명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언젠가 다시 뭉칠 것이라는 믿음으로 관계를 이어왔다. 13년 만에 다시 클릭비라는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다.

클릭비의 컴백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DSP 페스티벌을 통해서였다. 당시 군대에 있던 유호석을 제외한 6명의 멤버가 무대에 올랐다. 그 때의 경험이 그룹 재결성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7명이 다 모인 순간, 클릭비는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됐다. 바로 "클릭비다운 음악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었다.

"클릭비의 음악은 무엇이고 어떤 색깔인지 고민이 됐어요. '백전무패'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멤버 탈퇴 등으로 저희만의 색깔을 제대로 각인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1집부터 3집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맥락이 있다고 봐요. 바로 '밴드와 댄서의 조합'이죠. 오랜만에 나오는 만큼 팬에게도 보답이 될 수 있는 음악이길 바랐어요. 동시에 젊은 세대도 수용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노민혁)

그렇게 완성된 클릭비의 신곡이 바로 '리본(Reborn)'이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처럼 클릭비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담고 있다. 클릭비가 기존에 보여준 록 사운드에 최신 트렌드인 힙합 리듬을 가미한 노래다. '리본'과 함께 발표하는 '보고싶어'는 사랑 노래인 동시에 팬에게 바치는 노래다. 김상혁은 "'처음 만난 8월 그날처럼'이라는 가사로 팬과 우리의 이야기를 은연중에 담았다"고 밝혔다.

오랜만의 컴백인 만큼 음원차트 성적이나 방송활동에 대한 기대도 생길 법 하다. 그러나 오종혁은 "클릭비라는 이름으로 음반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음원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3년 동안 기다려준 팬을 위해, 그리고 7명 멤버 모두가 무대 위에 다시 서고 싶다는 뜻에서 결정한 컴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콘서트다. 다음달 20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콘서트는 예매 시작 2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30대가 돼 다시 뭉친 이들은 가장 '클릭비다운'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7명이 계속해서 음악을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단발적인 활동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늙더라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종혁)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DSP미디어

4인조 체제 '에프엑스' 27일 정규 4집 발표

설리 탈퇴 후 첫 앨범

걸그룹 에프엑스가 마침내 컴백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에프엑스는 오는 27일 자정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정규 4집 '포 월즈(4 Walls)'의 음원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발표한 정규 3집 '레드 라이트(Red Light)'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오는 에프엑스의 새 앨범이다. 설리의 탈퇴 이후 크리스탈, 빅토리아, 루나, 엠버의 4인조 체제로 처음 발표하는 앨범이기도 하다.

에프엑스 멤버들은 그동안 개별 활동으로 활약해왔다. 엠버는 첫 솔로 앨범 활동과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인기를 얻었다. 크리스탈과 빅토리아는 한국과 중국에서 연기자로 활동했다. 루나는 MBC '일밤-복면가왕'과 뮤지컬 출연으로 보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재입증했다.

에프엑스는 새 앨범 발표와 함께 색다른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이태원동 경리단길에서 '포 월즈 언 이그지빗(4 Walls An Exhibit)'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연다. 전시는 21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장병호 기자

1983년 서울에서 시작된 그리움의 울부짖음

우리를 감동시킬 명배우 _ 나문희, 박인환

33년 만에 초로의 노인이 되어
압록강국경 갈대숲에 마주선 두 명배우의 명품연기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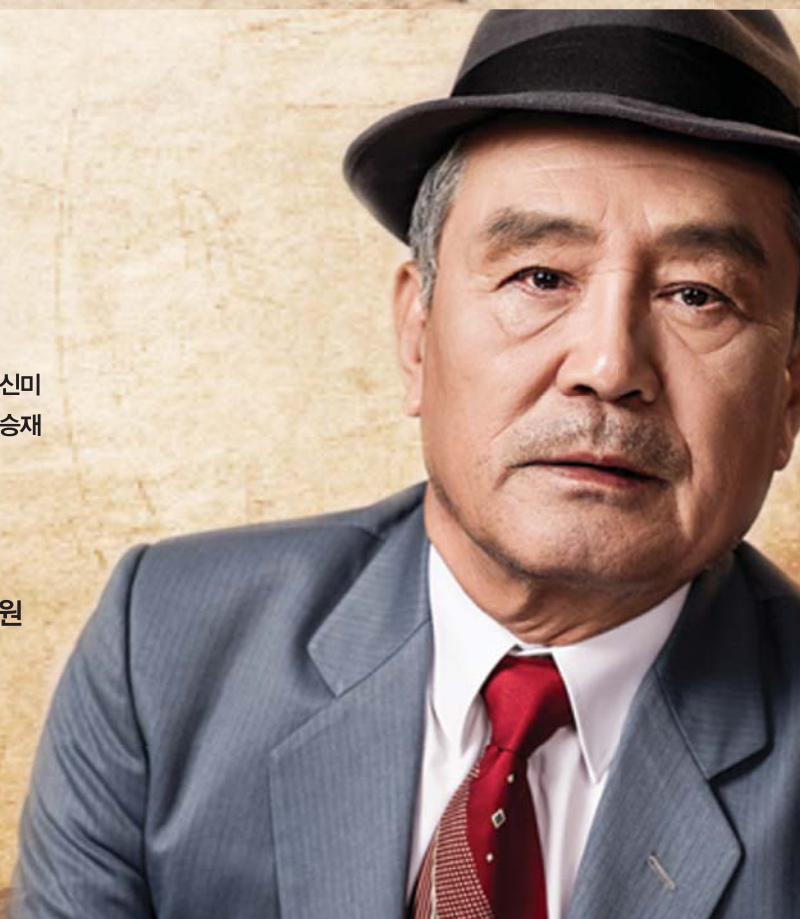
2015.10.30-11.15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출　연 _ 나문희 박인환 곽은태 왕은숙 권명현 주성중 오성림 원유석 임승연 박정아 박선옥 이신미
이경준 박성훈 신대성 고준식 이연경 유　미 박원진 한일경 정선영 홍은주 우현아 이승재
김범교 허도영 김형석 주경환 김수영 조현태 송종현 도레미 박경진 김은별

예매처 _ 세종문화티켓 www.sejongpac.or.kr 02-399-10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관람료 _ VIP 110,000원 | R 90,000원 | S 70,000원 | A 50,000원 | B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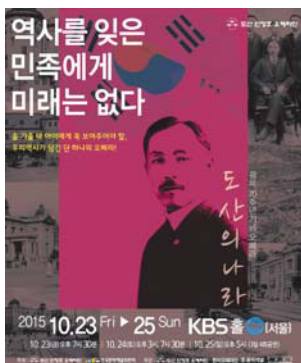
주　최 _ |재|세종문화회관 | 제작 _ 서울시뮤지컬단,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문의 | 서울시뮤지컬단 02-399-1772~3

오페라로 부활한 도산 안창호

‘광복 70주년’ 기념 작품 내일부터 KBS홀서 공연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창작 오페라 ‘선구자 도산 안창호–도산의 나라’(이하 ‘도산 안창호’)가 오는 23일부터 KBS홀에서 공연된다.

오페라 ‘도산 안창호’는 흥사단을 창단한 위대한 독립 운동가이자 민족을 위한 교육자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삶과 죽음을 다룬 이야기다.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 집단 자위권 행사 등 극우적인 행태와 풍요로움 속에 과거를 경시하는 현 세대의 부족한 역사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제작됐다.

작품을 주관하는 도산안창호오페라단 박용란 단장은 “이 작품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작 오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최근 혼란한 국가 정세 속 우리 국민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명확히 되짚어보고 역사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페라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공연된다. 또한 ‘올 가을 내 아이에게 꼭 보여줘야 할 역사가 있는 단 하나의 오페라’라는 소재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연·이벤트 문의: 도산안창호오페라단 사무실 02-540-8525~7)

/장병호 기자 solanin@

조성진, 韓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

세계 최고 권위 피아노 대회

총 27개국 160명 참가 가장 안정적으로 연주

한국인 최초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이 2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우승자로 호명되는 순간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피아니스트 조성진(남·21)이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조성진은 18~20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조성진은 지난 18일 8개국 10명이 경합한 결선에서 첫 번째 경연자로 나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해 가장 이성적이고 안정적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예선에는 27개국 160명이 참가했으며 78명이 본선에 올랐다.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88년 역사를 자랑하는 피아노 거장의 산실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다.

폴란드 태생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프레데릭 쇼팽(1810년~1849년)을 기리기 위해 1927년 바르샤바에서 창설된 대회다. 2차 세계 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5년에 한 번씩 꾸준히 열리고 있다.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더불어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힌다.

특히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등 여러 부문으로 구성된 두 콩쿠르와는 달리 오직 피아노만을 위한 대회로 쇼팽의 작품만으로 경연을 치른다.

16~30세의 젊은 피아니스트를 대상으로 국가별 예선을 거친 각국 최고 수준의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다.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1955년 2위), 마우리치오 폴리니(1960년 우승), 마르타 아르헤리치(1965년 우승), 크리스티안 짐머만(1975년 우승), 당타이손(1980년 우승), 스타니슬라프 부닌(1985년 우승) 등 거장들이 모두 쇼팽 콩쿠르 출신이다.

한국인이 결승에 오른 건 2005년 임동민·임동혁 형제가 처음으로 공동 3위로 입상한 이후 10년 만이다.

만 11세때인 2005년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조성진은 일찌감치 ‘천재’라는 수식이 따라다녔다.

2008년 국제 청소년 쇼팽 콩쿠르 최연소 우승, 2009년 하마마츠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소 우승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해에 제14회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3위로 입상했다.

피아니스트 박숙련·신수정에게 배웠으며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미셸 베로프를 사사하고 있다.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유진·이상우의 뜻밖의 소지품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유진과 이상우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각자의 개성이 담뿍 담긴 100개의 물건을 공개하며 숨겨온 반전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할 예정이다. 유진은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검소한 물건들로 시선을 끈다. 유재석은 이상우의 물건들을 살펴보며 “이분은 외로운 욕정남”이라고 주장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든다.

/정리=장병호 기자

◆ JTBC ‘님과 함께2’

오후 9시30분

가상결혼생활을 시작한 기욤 패트리가 결혼 선배 알베르토와 유세윤으로부터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비법을 전수 받는다. 윤정수·김숙의 파란만장한 신혼 첫날도 공개된다.

◆ MBC ‘경찰청 사람들 2015’

오후 11시10분

2008년 울산에서 일어난 6세 아이의 실종 사건을 다룬다. 1997년과 2011년, 15년의 시차를 뛰어넘는 평행이론 같은 기막힌 사건의 인연도 찾아간다.

◆ MBN ‘리얼다큐 숨’

오후 9시45분

‘흙빛 진주를 찾아라’ 편이다. 산삼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100년 묵은 전설의 흑도라지, 제주도 청정 지역에서 나는 추자도 홍합, 가을에 나오는 까치버섯을 살펴본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OCN series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뉴스특보–남북이산가족 상봉 11:55 안녕 우리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인간의 조건 스페셜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0 기분 좋은 날 10:55 내 딸, 금사월 11:55 특집 MBC 정오뉴스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20 웃찾사 스페셜 11:50 SBS 12뉴스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유자식상팔자 (재) 10:20 마녀사냥 (재) 11:5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05:50 천기누설 스페셜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1:50 속풀이쇼 동치미 (재)	05:00 할매네 로봇(재) 06:2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3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8:1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할매네 로봇 (재) 11:50 집밥 백선생 (재)	05:20 더 게임 07:20 썸데이 08:30 오리지널스 10:20 신의 퀴즈 시즌2 11:20 무비스토커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제96회 전국체육대회 15:55 오늘의 경제 16:05 한글날 특집 김소월 브라질에 가다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위기탈출 넘버원 (재)	12:50 엄마 (재) 14:05 리얼스토리 눈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40 뉴스특보–남북 이산가족 상봉 13:40 자기야–백년손님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5:00 두번째 스무살 (재) 17:40 코미디 빅리그 (재)	12:30 하와이 파이브–오 시즌5 14:10 에이전트 오브 쉴드 15:00 CSI 시즌12 16:40 오리지널스
18:00 6시 내고향 18: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코리언 지오그래픽 23:00 KBS 뉴스라인 23:40 청년 대한민국 NCS 미래학교, 재능을 이끌다 2부작	18:00 글로벌 24 18:25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해피 투게더 24:4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경찰청 사람들 2015 24:30 MBC 뉴스 24 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23:15 300회 특집 자기야–백년손님 24:40 나이트라인	18:3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2:50 썰전 24:15 비정상회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MBN협동프로젝트 신 부자수업 21:45 리얼다큐 숨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아궁이 (재)	19:00 수요미식회 (재) 20:20 어쩌다 어른 (재) 21: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1회) 23:00 슈퍼스타K7	18:20 수상한 고객들 20:20 에이전트 오브 쉴드 21:10 고담 22:00 5부작 미스터리스릴러 코마 (1부~5부)

리틀 태극전사, 역대 세번째 16강 진출

U-17 월드컵

2차전서 기니에 1-0 승 오세훈 골든타임에 결승골

21일(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의 라 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국제축구연맹 U-17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기니와 한국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에 오세훈이 극적으로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연합뉴스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칠레 라 세레나의 라 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열린 기니와의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1-0으로 승리했다.

지난 18일 브라질을 1-0으로 물리친 한국은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남은 24일 잉글랜드전 결과와 관계없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B조에서는 브라질이 잉글랜드를 1-0으로 제압, 1승 1패로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잉글랜드와 기니는 나란히 1무 1패로 탈락 위기에 몰렸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세번째다. 지난 1987년 캐나다 대회와 2009년 나이지리아 대회 때 8강에 진출한 바 있다.

한국은 이승우(FC바르셀로나)와 유주안(매탄고)을 전면에 내세웠다. 브라질전 결승골의 주인공인 장재원(현대고)은 미드필드에서 힘을 보탰다.

전반은 기니의 페이스대로 흘러갔다. 기니는 45분 동안 슈팅을 9개나 날렸다. 나비 방구라를 필두로 과감한 중거리 슛을 시도하며 한국의 골문을 위협했다.

한국은 전반 6분 이승우의 침투패스에 김진야(대건고)가 파고들었지만 골키퍼에게 차단당했다. 전반 18분 박명수(대건고)의 왼발 중거리 슛도 골대를 벗어났다.

기니는 전반 중반 이후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전반 44분에는 나비 방구라가 위협적인 감아차기로 간담을 서늘케 했다. 가까스로 전반을 0-0으로 마쳤다.

후반 들어 한국은 반격을 시작했다. 이승우의 돌파가 살아나면서 활기를 띠었다.

후반 18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이승우가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오른발 슛을 날렸다. 하지만 골키퍼가 이를 어렵게 쳐냈다. 달려들던 박명수의 왼발슛마저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 35분에는 박명수의 크로스를 받은 김정민(금호고)이 강슛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밀집수비를 통과하지 못했다.

0-0 상황으로 끝날 것 같던 경기는 후반 추가시간에 승패가 갈렸다. 기니 수비진의 공을 가로챈 유주안이 왼쪽으로 내준 공을 오세훈이 강력한 왼발 슛으로 기니의 골망을 흔들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KIA 최희섭, 은퇴 의사 전달

구단 측 "시간이 필요한 상황"

KIA 타이거즈의 최희섭(36·사진)이 은퇴를 고민 중이다.

21일 KIA에 따르면 최희섭은 최근 면담에서 은퇴 의사를 밝혔다. 한 관계자는 "허리가 안 좋아서 선수 본인이 현역 생활 연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며 "구단으로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KIA 측이 밝힌 '필요한 시간'은 최희섭에 대한 예우를 고민할 시간을 뜻한다.

최희섭은 한국인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타석에 섰던 타자다. 1999년 시카고 컵스에 입단, 2002년 빅리그에 데뷔해 플로리다 말린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를 거쳤다. 2005년 6월 3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는 등 메이저리그 통산 363경기 타율 0.240에 40홈런 120타점을 남겼다.

그는 뇌진탕 부상 후유증을 겪다가 해외파 특별지명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 고향팀 KIA에서 김상현과 함께 'CK포'를 구축, 2009년 타율 0.308에 33홈런 100타점을 터뜨려 KIA에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안겼다.

KIA 관계자는 "은퇴한다고 해서 그저 '은퇴하라'고 할 수는 없다. 모양새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며 최희섭을 어떤 모습으로 떠나보낼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캔자스시티, 월드시리즈 진출 눈앞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21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4차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14-2로 승리했다. 경기가 끝난 뒤 캔자스시티 선수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ALCS 4차전서 토론토 완파 1승만 거두면 2년연속 WS행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월드시리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캔자스시티는 21일(한국시간) 캐나다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 4차전에서 14-2로 승리했다. 1승만 더 거두면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하게 된다.

캔자스시티는 장단 15안타를 쳤다. 안타는 족족 득점으로 연결됐다.

1회부터 방망이가 폭발했다. 선두타자 알시데스 에스코바가 내야안타로 출루했다. 벤 조브리스트가 토론토의 우완 선발투수 R.A. 디키를 상대로 2점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이어 로렌조 케인이 볼넷을 골라 출루하고 에릭 호스모의 중전안타가 터진 뒤 폭투와 희생플라이로 2점을 더 달아났다.

2회에는 알렉스 리오스의 비거리 134m의 대형 홈런포로 1점을 추가했다. 7회에는 토론토의 세 번째 투수 라트로이 호킨스한테서 볼넷과 잇따른 안타로 무사 만루의 찬스를 만든 뒤 4점을 뽑았다.

기세는 8회에도 계속됐다. 1사 만루에서 에스코바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달아난 뒤 케인의 적시타로 2점을 더 도망갔다. 9회에도 토론토는 캔자스시티에 2점을 더 내줬다.

양팀은 22일 같은 장소에서 5차전을 벌인다.

/장병호 기자

타이거 우즈 "강력한 모습으로 복귀할 것"

두 번째 허리 수술 재활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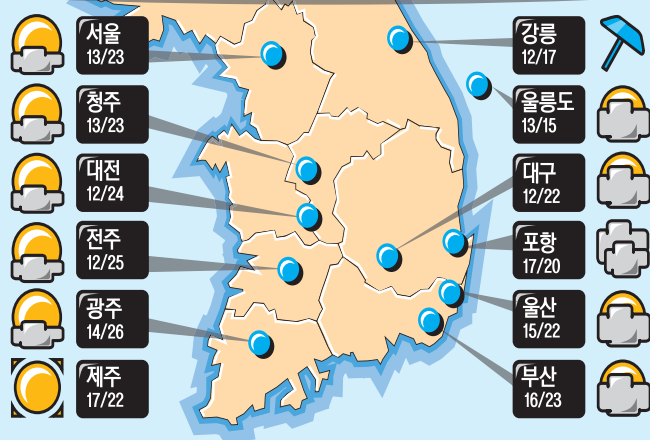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두 번째 허리 수술로 공백기를 갖는다.

AP통신에 따르면 우즈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브리지스톤 아메리카 골프컵 기자회견에서 "재활은 곧 시작한다. 그것은 지루하고 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달 18일 두 번째 허리 수술을 받았다고 깜짝 발표했다. 정기 검진 결과 디스크 조각이 신경을 누르고 있던 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23일 공동 10위로 마친 윈덤 챔피언십이 그의 올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마지막 대회가 됐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0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브리지스톤 아메리카 골프컵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P 뉴시스

우즈는 지난해 첫 허리 수술을 받고 마스터스에 불참하는 등 약 3개월을 쉬었다. 당시 우즈는 "너무 빨리 복귀했었다"는 후회 섞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우즈는 이번 재활에 대해 "PGA 투어에서 뛰는 일부 선수들도 이 같은 절차를 경험했다. 그들은 통증 없이 복귀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고 말했다. 장기간의 공백을 암시한 우즈는 그러나 복귀 후 화려한 커리어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확한 재활·복귀 일정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나는 강력한 모습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나는 더 많은 기간 연습해야 한다. 수개월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9			3		8	2
								4
			5		2	6		
6		2	3			7	4	8
9								5
5	7	3			8	2		6
		7	8		6			
3								
8	9		7			4	5	

5							4	
				4	7		2	
				2	8		6	
3	1				4	6		2
4	5						8	1
8		2	7				3	9
	7		4	5				
	8		2	6				
	9							5

스도쿠 정답

1	4	9	6	7	3	5	8	2
2	6	5	1	8	9	3	7	4
7	3	8	5	4	2	6	1	9
6	1	2	3	9	5	7	4	8
9	8	4	2	6	7	1	3	5
5	7	3	4	1	8	2	9	6
4	5	7	8	3	6	9	2	1
3	2	1	9	5	4	8	6	7
8	9	6	7	2	1	4	5	3

5	2	8	3	9	6	1	4	7
9	3	6	1	4	7	5	2	8
7	4	1	5	2	8	9	6	3
3	1	7	9	8	4	6	5	2
4	5	9	6	3	2	7	8	1
8	6	2	7	1	5	4	3	9
2	7	3	4	5	1	8	9	6
1	8	5	2	6	9	3	7	4
6	9	4	8	7	3	2	1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will be busy with my project

A: What is your plan?

B: I will meet a VIP client next Wednesday.

I will meet him in the Busan branch.

A: I will be busy with my project.

B: When is it due?

A: I will finish the project by next week.

B: This will be a busy day for us.

A: You bet.

저는 프로젝트로 바쁠 겁니다

A: 당신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B: 다음 주 수요일에 VIP 고객 한 명을 만날 거예요. 부산 지점에서 그를 만날 겁니다.

A: 저는 프로젝트로 바쁠 겁니다.

B: 마감일이 언제죠?

A: 다음 주까지 그 프로젝트를 끝낼 겁니다.

B: 우리에게 바쁜 날이 되겠군요.

A: 물론이죠.

문법Point

1인칭 I/We를 주어로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거나 계획을 말할 때 조동사 will을 사용한다. 다른 명사가 주어일 때는 단순한 미래의 예정을 나타낸다.

ex) I will meet him in the Busan branch.
부산 지점에서 그를 만날 겁니다.
ex) This will be a busy day for us.
우리에게 바쁜날이 되겠군요.

Words

VIP(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due 완료 예정인

* You bet : 물론이죠, 당연하지요
– 내기를 해도 자신 있을 정도로 틀림없다는 의미의 표현.

김상희의 사주속으로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아들 잃고 이혼… 불도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귀의 후 불화·불서예로 공덕 쌓으면 보람될 듯

삼귀의 중년남자 70년 7월 1일 양력 10시

Q 한국에 무료 신문 메트로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히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보면서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 심도 있게 읽고 있으며 역학에 관심이 많아 스크랩을 해가면서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집의 어른 권고로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살아오다가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작년에는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지 속세를 떠나 불도에 귀의하고 싶습니다. 저의 팔자에 승도의 길을 갈 수 있으며 그것이 저의 인생 후반에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는지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겁살(劫煞)이라 하여 팔자에서 서로 상극되는 기운의 글자로 쌍방이 양보 없이 다투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인지 경쟁과 대립 결별 등의 국면을 야기할 때가 보통수준을 넘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는 심신의 소모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겁살은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지요.

겁살이 형이나 충으로 이어지면 깊은 불운에 처합니다. 삶의 무거운 변화와 곡절은 반복되어 이어지니 우여곡절의 소동은 아직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종교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어렵지만 나름 최선의 선택이라고도 봅니다.

천문(天文)이 있어 불사(佛事:불교)에 깊은 관심을 두고 효신(梟神:어미를 잡아먹는 올빼미의 표현)으로 모친의 덕이 없거나 모외유모(母外有母)를 두어 고독의 전형적인 사주입니다.

처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있어 처의 힘이 전혀 없으니 부부간에 화목을 이룰 수 없었으며 자식자리에 역마 충살(沖殺:충돌하고 때려 맞는 것과 같은 흉함)로 아들을 잃게 됩니다.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수기(水氣)가 없고 사주 뿌리에 화기(火氣)가 충천하니 금전적으로 매우 인색할 것인데 이 또한 변화를 이루어야 하겠지요.

생월간(生月干)에 임수(壬水)가 있으나 화국(火局:불로 무리를 이룸)으로 메말라 있으며 연간(年干)에 경금(庚金)이 수기(水氣)를 도와주려고 하지만 역시 불의 기운으로 힘을 못 쓰게 되어 속진(俗塵:속세의 티끌)의 인연을 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장점으로 꼼꼼하고 글씨나 그림에 소질이 있으므로 귀의(歸儀)하여 탱화 같은 불화(佛畵)나 불서예(佛書藝)에 공덕을 쌓으며 귀하의 뜻대로 보람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2일 (음 9월 10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귀하의 인품을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고 따릅니다. **60년생** 원대한 것을 이루겠습니다. **72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84년생** 너무 거만하지 마세요.

49년생 일을 적당히 처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61년생**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73년생**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85년생** 고민하던 이성 문제에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50년생 늘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62년생** 만나고 싶어하던 귀인이 찾아옵니다. **74년생** 삶을 좀 더 즐겁고 활기차게 살도록 하세요. **86년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됩니다.

51년생 사치를 삼가세요. **63년생** 바람기는 절대로 안됩니다. **75년생** 주위사람에게 칭찬 또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87년생** 이기심은 망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52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64년생** 주변에서 다가오는 여성을 조심하세요. **76년생**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88년생** 마음만 급하고 실천은 안일하니 뜻을 이룰 리 만무합니다.

53년생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65년생** 다툼을 주의한다면 결과가 좋습니다. **77년생** 우유부단하면 주변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89년생** 고생을 각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54년생 겸허한 마음과 근면한 마음으로 일을 하세요. **66년생** 자신의 상태에 만족 하세요. **78년생**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천에 들어가세요. **90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5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7년생** 동쪽이 길방입니다. **79년생** 신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91년생** 몸과 정신이 맑으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56년생 적극적으로 밀고 나아가세요. **68년생**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80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주의하세요. **92년생** 귀하는 무엇보다 학업에 열정을 갖는 것이 길합니다.

57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69년생** 뜻밖에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81년생** 사회는 냉정합니다. **93년생**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58년생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길합니다. **70년생** 밖의 일보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살펴보세요. **82년생** 주위를 잘 살피세요. **94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59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71년생** 많은 것을 기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더 이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95년생** 올바른 일이라도 실력이상의 일은 귀하에게 맞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김종훈의
정계 바로보기

국정교과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 교과서 정국을 세력다툼으로 몰고 가는 것이 우려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5개월 남짓 남아 있는 가운데 교과서를 두고 좌익 우익 나눠가며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분위기다. 여야는 선거 정국으로 들어서는 마당에 첨예한 대결로 각종 사회단체를 등에 업고 편 가르기에 열심이다.

정치권이 나서 국민 갈등구도를 만들고 있다.

교과서 보다는 교과서 문제를 필두로 세대,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현안은 관심이 없다. 정치인들은 교과서 문제로 반사이익만 노리며 국민을 절망 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 화합을 외치면서 갈등을 조장하며 편 가르기로 상처를 입히고 있다.

요즘 국정교과서 문제는 마치 남북한의 이념갈등 보다도 더해 보인다. 정부·여당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이내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상당수 반응은 정치권의 싸움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경제는 갈수록 불황인데 야권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모든 일을 때려 치우고 여야가 싸우면 밥이 나오는 문제도 아닌데 한심하다 는 등의 반응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여야의 '역사전쟁'은 최근 한·미 FTA, 취업 문제 등 현안과 민생을 덮었다.

정부와 여당은 보수층을 겨냥해 친일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행태를 정치공세라고 개탄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매국행위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정화 저지 투쟁에 전력투구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여야는 '민생 발목잡기' 등을 운운하며 총선승리를 위한 구태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이념 전쟁인지 궁금할 지경이다. 국민은 뒷전이고 '친박·비박', '친로·비노' 간 공천을 두고 이전투구다.

국론이 분열되고 당론이 갈피를 잡지 못한 여야의 정치인들은 사심을 버리고 학생들을 위해 좋은 교과서 만들기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파문을 조기에 정리하고 화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바란다. /정경사회부장

강호인 장관 내정자에게 바란다

기자 수첩
박 상 길
<파이낸스&마켓>

조달청장 출신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30여 년간의 관료 생활 중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은 경력과 관련해 시장에서 말들이 많다.

국토교통부 내부적으로도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가 내정된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토부 내부 인사가 아니라는 실망감도 묻어 난다. 내정자로선 이중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 내정자가 국토부와 전혀 인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과장을 마친 2009년 9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조정2과장으로 부임해 외환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현장 중단 사태를 막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국토부 관계자들과 현지 사업 추진을 위한 수습 작업에 참여했다.

강 내정자는 조달청장 시절엔 해외 조달 시장 개척에 힘썼다. 국가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수출을 위해 맞춤형 조달 제도를 연구했다. 또한 남미와 유럽에 발품을 판 결과 코스타리카와 튀니지 등 7곳에 해당 시스템이 판매됐다.

강 내정자는 조달청장 시절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사회적 책임 조달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정부 계약에서 혜택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 업체에 고용과 노동권 준수 등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대신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요구했다.

강 내정자는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조직원과 국민 앞에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그간의 전문성을 살리는 정공법으로 해외 건설 시장 개척에 힘쓰길 바란다.

현재 국내 건설사는 저유가로 해외 수주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수주 텃밭이었던 중동은 발주량이 줄고 계약도 미뤄지면서 사업이 중단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지지세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응하기 위해선 단순하고 효과적인 처방, 체감이 빠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社說

검사평가제 해볼 만하다

통제없는 권한을 휘둘러온 검사에 대해 변호사들이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검찰의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변협은 변호사의 온라인 평가표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할 계획이다. 우수검사의 명단은 공개하되 하위검사는 공표하지 않고 검사 개인과 검찰에 통지만 할 예정이다.

사실 1987년 6월항쟁을 거쳐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이 있다면 아마도 법조인일 것이다. 종전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군인 출신이 물러간 대신에 법조인들이 그 자리를 메운 것이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제까지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해 왔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행사할 때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다. 간혹 뒤늦게 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음이 드러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고생한 시민만 억울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법원 재심결과 '유서대필' 사건의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검사평가제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다. 이를테면 수사에 불만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악용하고 공정한 수사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검사들에게 최소한의 '평가'를 통한 견제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실효성도 확보돼야 한다. 변협은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서울은 약 10명씩, 지방은 5명 수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숫자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검사들이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 병원 후송 뒤 자리 비우면 도주?

생활 법률

A씨는 몇 달 전 새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B씨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근처 병원으로 B씨를 데려갔고, 접수창구 직원에게 "치료를 잘 부탁한다"면서 내일 아침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자리를 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경찰은 A씨에게 "뺑소니를 쳤다"면서 연행해갔다. B씨를 병원에 옮겼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A씨. 경황이 없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만 두고 뺑소니 사고로 볼 수 있을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상 당한 피해자에 대해 구호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고 야기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를 보면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후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파출소에 출석시킨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했지만 병원이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 사례가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미란 기자 actor@

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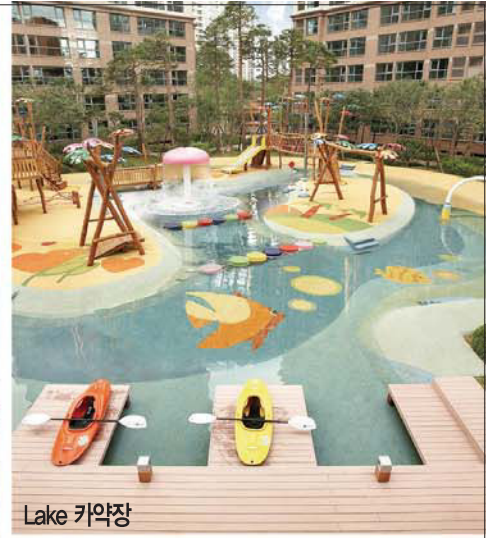
◇국민안전처 △부이사관 승진 ▷정윤한 ▷임현우 ▷전만권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재정관리총괄 김재신 ▷사회재정성과 정희갑 ▷회계결산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실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성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장 김남숙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은화수 △과장급 승진 ▷청년위원회 파견 최진
◇중소기업청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순석
◇국제신문 ▷총무이사 공동식 ▷편집국장 박무성 ▷문화사업국장 고기화 ▷논설위원 장재건
◇한양대 △서울캠퍼스 ▷기획처장 정현철 ▷경영감사실장 위계찬
◇한림대학교 ▷인문대학장 김기순

부 고

▲고성칠(전 동남초교 교장)씨 별세, 익상(사업)·익용(사업)·안조(하나생명 본부장)·미순·미자씨 부친상 = 20일 오후 4시,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공설봉안당, 발인 22일 오전 7시(010-2864-4466)
▲김행식씨 별세, 김택수(KDB대우증권 탁구부 감독)씨 장인상 = 21일 오전 06시30분, 장곡농협홍주장례식장 2층 특1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30분 (041-634-4444)
▲박남엽씨 별세, 이봉규(한양 건축주택사업본부 전무)씨 모친상 = 21일 전남 보성군 벌교 중앙장례식장 1호실, 발인 23일(061-857-3000)
▲백수자씨 별세, 박대식마이티건설부사장 부인상, 박준호현대해상화재보험과장·창호동진테크원차장 모친상 = 20일 9시1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6시(02-3010-2262)
▲안영후씨 별세, 안준석영등포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지현새움교육미디어수석실장 부친상, 손정길현대산업개발상무 장인상, 김소은씨 시부상 = 20일 5시4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6시40분(02-3010-2292)
▲이동주씨 별세, 김점석(전 KBS대전방송총국 취재부장)씨 모친상 = 20일 오후 8시 30분,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02-2002-8439)
▲정승수(전 동백사 대표)씨 별세, 경호(HS애드 부장)씨 부친상, 박상영(전 LH공사 차장)씨 시부상 = 20일 오후 11시 49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02-3010-2233)
▲최승순(강원대 명예교수)씨 별세, 최동욱(최동욱의원장)·동희·동안씨 부친상, 박경웅(박경웅마취통증과의원장)·최용우(가톨릭대 의대 마취통증과 교수)씨 장인상, 김수영 시부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오전9시(02-2258-5940)

Xi U[b] Home System(홈네트워크제품군)

게스트룸

자이갤러리

Lake 카약장

자이안 수영장

일산자이 전경

Orbit
(태양광가로등)

최초로 기억되는 아파트 자이, 앞선 아파트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자이는 늘 당신의 생활에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손끝 하나로 컨트롤되는 홈 네트워크는 물론 환경까지 배려하는 그린스마트시스템
단지 내 원스톱 커뮤니티, 자이안센터에서 입주민 불만제로를 위한 CS전용 콜센터까지
모든 것이 더 스마트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최초의 기술로 최고의 감동을 선사하는 자이,

가장 앞선 아파트, 자이가 만듭니다